교감

39 휴

40 장성인

44 문화 관광 해설사 이야기

누정(樓亭)과 모정(茅亭) 사이

47 장성아카데미 강연 리뷰

인간, 기생충에게 배우다

50 장성 풍경

홍길동 테마파크

MBC드라마 '역적' 홍길동의 고장 '장성'에 떴다!

54 창작마당

오감

58 음 식탐방

정관 스님의 사찰 음식 '봄나 물'

62 장성의 맛집

건강한 자연 맛집 '강마루 돈가스'

64 이색카페

장성역 'CAFE THE COKE'

66 한방이야기

우슬이야기

68 농산물 소개

94 한 컷 뉴스

78 의정소식

82 문화마당

1번지

84

92 나 눔마당

93 알림마당

53

61

봄날
함께 떠나는 꽃길 여행

봄이 오니 꽃과 나무가 뿜어내는 향과 색이 더 짙어졌다. 연분홍 벚
유채꽃까지 봄빛 가득 머금은 장성은 꽃길처럼 아름답다. 좋은 사람
꽃 길을 걸으며, 그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봄꽃 축제도 함께 즐겨보자.

01

02

03

01_ 백양사 진입로(백양사에서 나오는 일방로)
02_ 백양길(구 국도1호선)
03_ 백양사 주차장 입구
04_ 백양사 고불매(우리나라 4대 매화로 천연기념물 제
05_ 진원면 벚꽃길

04

봄 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길

장성의 대표 벚꽃 명소 중 첫 번째로 꼽는 곳은 백양사이다. 특히 백양사 진입로는 하늘하늘 벚꽃비가 내리는 장관이 펼쳐진다. 가을 단풍으로 물든 백양사도 아름답지만, 고불매와 벚꽃, 목련 등 봄 꽃으로 흐드러진 봄의 백양사도 이에 못지 않다. 또한, 광주와 가까운 진원면과 남면의 도로를 달리면 자동차 위로 벚꽃이 흩날리는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05

황룡강 줄기 따라 펼쳐지는 노란 유채꽃 길

장성의 젖줄인 '황룡강'은 봄볕과 함께 강변을 따라 드넓은 유채꽃밭이 펼쳐진다. 탁 트인 시원한 강변에 노랗게 피어있는 유채꽃의 장관은 '옐로우시티' 장성의 봄이기에 더욱 특별하다. 노란 빛으로 일렁이는 황룡강의 봄을 만나보자.

노란 봄빛 속에서 추억을 만드는 '홍길동 축제

장성의 대표 축제인 '홍길동축제'가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황룡강변과 홍길동테마파크에서 펼쳐져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황룡강변을 주무대로 하여 축제 개막식과 다채로운 공연이 열리고, 버스킹 공연과 길거리 퍼포먼스 등 노란 꽃길 속에서 봄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한다. 홍길동테마파크에서는 병영 체험, 관아 체험, 활쏘기 등 홍길동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다.

쉿~! 비밀코드 '옐로우', 빈센트의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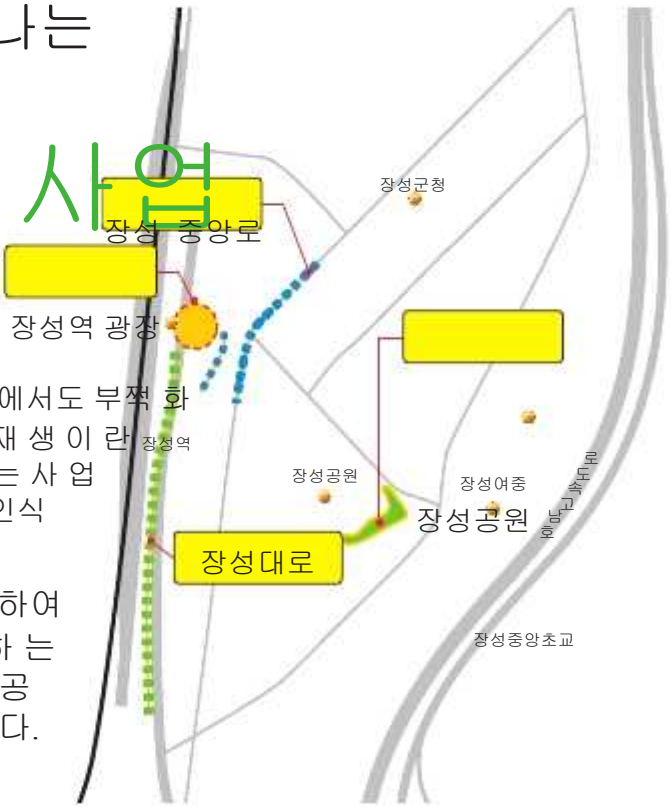
해마다 4월이면 장성역 광장은 노란 튤립과 꽃향기로 가득한 정원이 된다. 노란색 꽃과 '빈센트 반 고흐'를 주제로 한 예술과 낭만의 '빈센트의 봄' 축제가 지난 4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 간 열렸다. 올해는 드레스코드를 '옐로우'로 설정하여 노란색 옷과 소품을 착용해 옐로우 간식을 맛보는 등 색다른 이벤트를 펼쳐 축제에 재미를 더했다. 장성역에 들러 노란 꽃과 문화의 향기를 느껴 보자.

5월에는 장미의 향연, 평림댐 장미공원

장성 삼계면에 위치한 평림댐 장미공원에서는 형형색색의 장미가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장미로 둘러싸인 장미터널과 시원하게 쏟아지는 벽식폭포는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들의 나들이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프랑스, 영국 등 나라별로 다양한 색의 장미와 '옐로우시티'의 상징 노란색 장미가 더해져 더욱 화려하고 볼거리가 풍성하다. 5월에 찾아오는 장미의 향연을 미리 만나보자.

문화와 예술, 향기로 다시 태어나는

장성의 도시재생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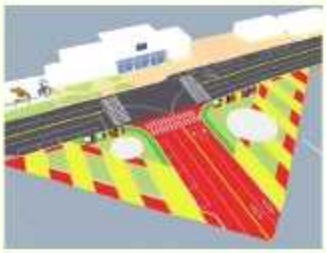


요즘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사이에서도 부쩍 화두가 되는 용어가 있다. 바로 '도시재생'이다. 도시재생이란 노후화된 기존 시가지를 재정비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도시를 '개발'에서 '관리재생'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장성은 '옐로우시티'라는 브랜드를 도시재생에 도입하여 장성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경관 디자인을 재정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소통과 만남, 예술의 공간으로 다시 살아나는 장성의 도시재생사업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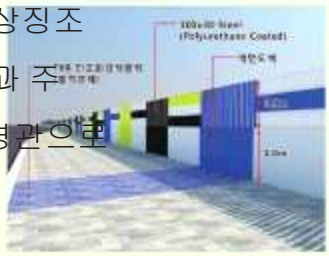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 창조사업

전국 최초의 컬러 마케팅 '옐로우시티' 장성의 중심부인 장성읍 일대가 장성역을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 까지 국비 16억 원을 포함해 총 3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1월, 사업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 영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중이다.



장성역 광장

장성역 일대를 광장으로 조성한다. 공연장과 갤러리, 상징조형물을 세워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중앙로 바닥과 주변 건물을 컬러풀하게 도색한다. 바닥분수와 야간경관으로 도심놀이터와 장성의 랜드마크가 탄생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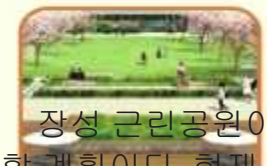
장성대로

낡고 오래된 담장을 철거하고 할머니 장터 등 주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장성역 광장과 연결되는 세련된 도로로 다시 태어난다.

장성중앙로

가로 경관의 통일성을 위해 도로 주변 건물 벽면을 도색한다. 색채를 조화롭게 적용한 먹거리 타운도 조성된다.

애국의 길을 그리다, 장성 호국공원 조성사업



장성 근린공원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충혼의 정신을 기리는 역사교육 공간으로 재탄생할 계획이다. 현재 전라남도 재정투융자심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유두석 장성군수는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황설리화 군락지를 조성하고 천연 형광 골재로 산책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정원이 펼쳐지는 소통의 길

노란 데크 산책길과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거버넌스 공간

- 그림계단, 옐로우데크, 5가지 미니정원 등

놀이와 운동, 쉼이 있는 만남의 길

가족들의 놀이 공간 및 자연 치유 공간

- 조화류 정원, 주민운동시설, 생태놀이터 등

애국 정신을 기리고 학습하는 안보의 길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추모하는 역사 공간

- 충혼광장, 역사가벽, 호국기념관, 충혼탑 등

긍정의 컬러마케팅 '노란예술마을' 감성여행

이 사업은 옐로우시티 테마에 어울리는 문화예술사업으로 장성읍 일원, 각 읍 · 면사무소, 학교, 문화예술회관 등 건물과 마을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군은 올해부터 3년 간 국비 5억 원을 포함해 총 7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민의 정서 함양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감성 디자인단 운영
주민과 전문가의 협업으로 환경 · 문화를 디자인 하는 거버넌스
미술 동아리 지원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예술프로그램 운영
스토리가 있는 월아트 만들기
장성읍과 황룡강 수변 중심으로 전설과 역사를 그린 벽면 꾸미기
노란예술마을센터 운영
주민이 만들고 사람이 찾아오는 예술 센터

오감힐링 향기정원 마을가꾸기

장성읍, 삼계면, 황룡면, 북이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색깔 있는 힐링 생태정원, 자전거 꽃길, 마을정원 등을 조성하고 지역 전체가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기반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부터 3년간 국비 5억 3천만 원을 포함해 총 7억 6천만 원을 투입하고 적극적으로 대상지를 발굴해 활기 넘치는 지역을 만들 계획이다.

장미터널 야경

서삼교 장미터널 포토존

서삼교의 변신 '장미터널 조성'

장성읍 기산리에 위치한 황룡강 서삼교는 인적이 드문 낡은 다리였다. 황룡강을 활용한 '황룡강 르네스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면서 지난해 제2회 장성가을 노란꽃잔치와 함께 서삼교의 모습도 확 바뀌었다. 노란색 바람개비와 예쁜 꽃들이 가득한 화단을 만들고, 목재 데크를 이용해 깔끔한 다리로 만들어 황룡강의 물결을 전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올해는 장미와 금사슬 등 넝쿨식물을 식재하고, 화단에는 노란 튤립을 심을 계획이다. 또한 터널 내부에는 꽃바구니, 조형물 등을 전시하여 사계절 내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 황룡강 서삼교 예시〉

도로인가요? 정원인가요?

황금편백 식재

좁고 답답했던 장성의 주요 진출입로와 도로가 4차선으로 대폭 확장된다. 장성대로에는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장성군을 대표하는 나무를 심어 조경한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옐로우시티 장성만의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것이다.

고려시멘트~청운고가 : 사과나무(알프스오토메-미니사과) 식재
주공아파트~황룡시장 : 황금 편백나무 식재

잘 가꾸어진 도시 환경은
일상생활에 즐거움 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 에게 자부심이 됩니다.

유두석 군수, 소통으로 키운 창조 경영은 수상 대박 행진!

민선 6기 취임과 동시에 소통과 창의 행정을 강조해 온 유두석 군수. 일방통행식 행 정 시 스 템 을 탈 피 하 고, 격 의 없 는 소 통 을 통 해 만 들 어 낸 창 의 적 인 정 책 사 업 으 을 인정받고 있다.

2017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미래경영 부문' 수상

지난 3월 29일, 유두석 군수는 서울 힐튼호텔에서 중앙일보 주관으로 열린 '2017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시상에서 미래경영 부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장성군의 새로운 브랜드 '옐로우시티'가 장성의 미래 먹거리 자원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컬러를 이용해 관광 상품, 먹거리, 특산물 판매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가는 옐로우시티.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유 군수는 영국 유학 시절, 세계 최대 정원 및 원예박람회인 '첼시 플라워 쇼'를 보고 '색채도시'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인도 자이푸르(핑크), 스페인 안달루시아(파랑), 그리스 산토리니(순백과 파랑) 등 색채를 관광 자원화하는 데 성공한 세계

공감

2016년도에 이어 올해도 최

- 2017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도시 브랜드 부문)
- 2017 광주 · 전남 지방자치 최고 경영대상 (복지보건 부문)
- 2017 광주 · 전남 지방자치 경영대상 3개부
- (행정서비스, 안전환경, 인적자원 육성 부
- 2017 투자유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 2017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미래경영 부문)

여러 도시를 본보기로 삼았다. 장성의 '노란색' 은행
용강에 장성을 수호하는 누런 용이 살았다는 전설
에서 착안하였다.

군은 2014년부터 옐로우시티 조성사업에 나섰
며, 2020년까지 사업비 435억 원을 투입해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자치단체로는 최초
로 시도한 컬러 마케팅 '옐로우시티'는 경제, 문화,
관광 전반에 걸쳐 활력을 주는 희망브랜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방자치 경영대상 3개 부문 석권

'행정서비스, 안전환경, 인적자원 육성 부문' 수상

지난 3월 14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광남일보 주
관으로 열린 '제8회 광주·전남 지방자치 경영대상'
에서 행정서비스, 인적자원 육성, 안전환경 등 총
3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탁월한 행정력을 인정받
았다.

군은 지난해부터 권역별 이장회의를 통해 지역
별 공통 현안을 공유하고, 수요자 맞춤정책을 펼쳐
왔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개관으로 청소년에게 수준높은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귀농귀촌 맞춤 교육을 실시하여 인적자원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전환경 부문에서는 마을별 방범 CCTV, 전 읍면 재난방송 시스템, 재활용품 수거시설 '클린하우스' 설치 등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정받았다.

광주·전남 지방자치 최고 경영대상

'복지보건 부문' 수상

또한, 한국거버넌스학회와 무등일보 공동 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린 '광주·전남 지방자치 최고 경영대상'에서 복지보건 부문 대상을 수상해 실버복지 1번지의 명성을 보여주었다. 군은 민선 6기 들어 현대식 공공실버주택 건립, 효도권 지원 등 굵직한 실버복지 서비스를 펼쳐 어르신들의 생활 복지 여건을 개선하였다. 이 밖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서삼면·남면 보건지소 건립, 치매전문거점센터 운영 등 수혜자의 목소리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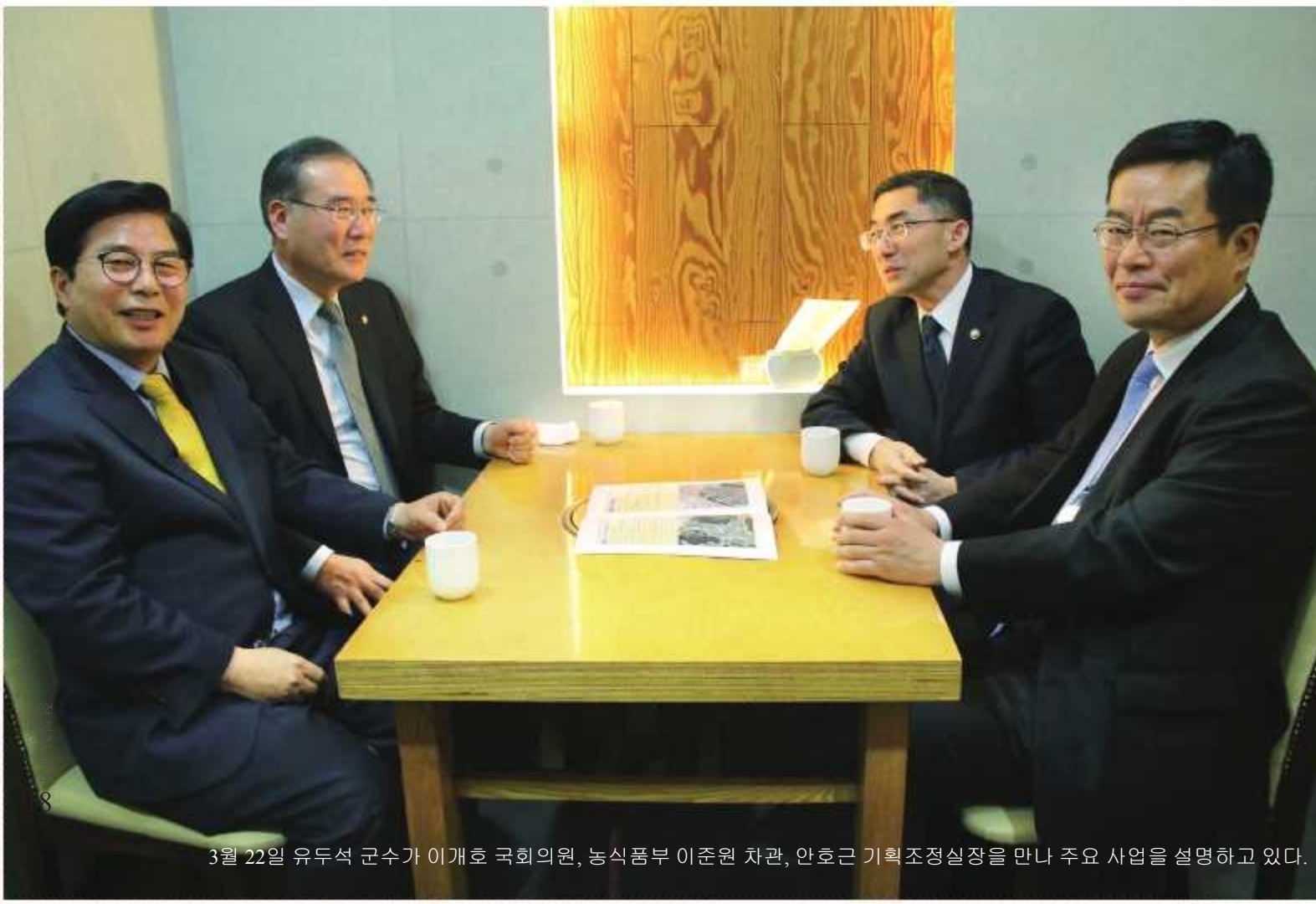
장성군, 국비 확보 위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유두석 군수는 장성의 십년, 미래의 백년을 바꿀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유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등 중앙부처 관계자를 직접 만나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가 지난 3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핵심 관계자들을 연이어 만나 2018년도 장성군 역점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 설명

이날 유 군수는 농축식품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장성사무소 설치를 적극 요청했다. 현재 장성



3월 22일 유두석 군수가 이개호 국회의원,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 안호근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펼쳐진
작년 장성가을노란꽃잔치에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주민들은 친환경 인증, 농업 경영체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주사무소가 있는 담양군까지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장성사무소 설치 사업은 이러한 지역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설명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는 현재 장성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이를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군은 황룡강에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문화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성의 관광,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대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큰 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생태하천 사업, 전망대 건립, 황미르 테마공원 조성 등 사업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장성 호국공원 조성 사업 설명

지난 3월 9일에는 유두석 군수가 국가보훈처장을 직접 만나 장성 호국공원 조성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했다. 활용 가능한 콘텐츠가 다양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워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호국공원 조성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 군수는 민선 6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옐로우시티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장성의 미래를 바꿀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절실한 것으로 보고 국비 선점을 위해 총력을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군은 2018년 국비사업으로 총 60개 사업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국비 350억여 원을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이끌 국비 사업을 사전에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실버복지 1번지 장성, ‘토방 낮춤 사업

어르신들의 마음을 어루만진 진정한 복지의 재발견

장성군의 '깨알 복지' 사업이 화제다. 유두석 군수는 최근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 불편했던 시골집 토방에 경사로를 설치해주는 ‘토방 낮춤 사업’을 직접 고안해냈다. 굵직한 복지사업부터 섬세한 실질 복지까지 ‘실버복지 1번지’의 명성을 더욱 다져가고 있다.

토방에 경사로 설치 “오르내리기 편해집니다.”

옛날식 주택에 많이 남아 있는 토방. 유난히 높아 퇴행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토방에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 줄 ‘경사로’가 설치된다. 이는 유두석 군수가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유심히 듣고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안타까워하며 직접 고안해 낸 아이디어다.

군은 이러한 생활 속 불편을 없애기 위해 최근 ‘토방 낮춤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경사로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5월까지 2000년도 이전에 건축된 주택 10,389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시설 개선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령자는 물론 거동불편인, 장애인의 주택도 지원해 생활 속 복지를 실현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이래, 여기에서 확보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사업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군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장성은 지금 ‘실버복지 1번지’로 각광!

‘실버복지 1번지’ 장성의 대대적인 복지사업은 ‘현대식 공공실버주택’이다. 현대식 공공실버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주택으로 주거, 복지, 건강, 경제활동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이다. 전액 국비로 장성읍 영천리에 건립 중이다.

또한 효도권 지원사업 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65세 이

상 어르신들이 이·미용업소와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이다. 민선 6기 이후, 그동안 분리되어 있는 이·미용권과 목욕권을 효도권으로 통합했다. 개인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개인별 지원액도 두 배로 늘렸다.

전문적인 의료시설로는 공립노인요양병원 건립(2006), 전남 서북부 치매전문거점센터 건립(2016). 서삼면·남면 보건지소 건립(2016) 등 어르신들을 위한 최첨단 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풍요를 상징하는 미래조형물 로 장성을 디자인하다!

• 설치시기 : 2017. 3. • 위치 : 군민회관 앞(화단) • 규격 : 높이 3.5m, 너비 3m

군은 새로운 희망 브랜드 '옐로우시티' 장성의 미래와 발전을 상징하는 미래조형물을 설치해 도시의 관문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 지난 3월 군민회관 앞에 설치한 '되박탑(가칭)' 은 곡식을 퍼 담을 때 쓰는 정사각형 모양의 '되박'을 형상화해 풍요로운 부자 농촌의 이미지와 군민들에게 복을 가져다준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대박 나라'('크게 성공하라'는 의미의 유행어)라는 재미있는 뜻까지 더해 장성의 발전과 희망찬 미래를 지향한다. Y자 형태는 'Yellow City'를, 정사각형 안의 'ㅈ', ㅅ'의 모양은 '장성'의 앞 자음을 딴 것이다. 색은 우리나라 전통의 오방색을 사용하였으며, 야간조명을 이용해 도심 속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이 조형물은 군민들이 자주 오고가며 볼 수 있도록 군민회관 앞에 설치해 장성의 미래를 5만 군민들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장성 군민회관 앞 조형물 (되박탑(가칭), "대박나라")

장성의 혁신과 변화를 의미하는 ‘ 장성 관문 조형물 ’

- 설치시기 : 2017. 10.
- 위　　치 : 광주-장성 간 국도 1호선(진원면 산정리)
- 규　　격 : 높이 28m, 너비 34m

정중앙의 ‘人(사람인)’ 자는 장성군민을 상징하여 군의 안정 · 발전 · 성장을 위해 서로 화합하고 협
는 모습을 의미한다. 조형물 상단 화살표는 장성의 변화와 발전 의지를 반영했다. ‘열정’을 상징하는
색과 ‘생동’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태극 형상을 조화롭게 적용했으며, 야간에는 LED 전광판 기능
다. 올해 10월 국도 1호선 진출입로에 관문 조형물이 완공되면, 새롭고 독창적인 조형물로 지역의 랜
크가 될 것이다.

장성 명품 랜드마크

- 설치시기 : 2015. 7
- 위　　치 : 장성읍 오거리 회전교차로(고려시멘트 부근)
- 규　　격 : 높이 7.6m, 너비 5.6m

장성 명품 랜드마크가 된 회전교차로 ‘애플랍’

- 설치시기 : 2015. 7.

태양과 지역 특산품인

태 양과 지역 특산품인 장성 사과의 형상을 띤 애플조형탑. 지난 2015
년 4월, 위험하고 혼잡했던 장성읍 오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장성 상징조형물 애플탑을 세워 교통안전 도모는 물론 경관이미지까
놓았다. 조형탑 주변으로는 사계절 노란 꽃들을 식재하여 옐로우시티
어울리는 장성의 명품 랜드마크가 되었다.

장성군과 상무대,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간다!

장성군은 상무대와 다각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를 돈독히

군, 상무대 전담 협력관 채용으로 소통 채널 강화

상무대는 장성 삼서면과 삼계면 일대에 위치한 육군교육시설이다. 보병학교, 포병학교, 기계화학교, 화생방학교, 공병학교 등 5개 학교를 중심으로 근무지원단, 군수지원단, 기무부대가 들어서 있다.

군은 지난 1월, 상무대와의 상시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상무대와의 소통을 전담할 협력관을 새로 채용했다. 이는 유두석 군수가 상무대와 군인 가족들을 장성군의 중요 구성원으로 흡수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양 기관이 쌓아온 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새로 채용된 협력관은 상무대에서 근무해 온 장교 출신으로 장성에서도 오랜 기간 거주해 양 기관이 추구하는 정책과 요구를 잘 이해하고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상무대, 장병에게 장성문화탐방 실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

상무대는 이 같은 장성군의 협력의지에 환영의 뜻을 보이며 침체된 장성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동참
다. 우선 장병들에게 각종 기념일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 인근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지역 식당과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이밖에도 상무대 면회실 한
에 장성 농 · 특산물 홍보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장성을 처음으로 방문한 초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성의 주요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투어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무대 초군장교 등 1,000여 명 봄맞이 자연정화활동

지난 3월 11일, 상무대 초군장교 등 1,000여 명이 장성종합훈련장과 황룡강 주변에 대한 자연정화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지역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과 노인요양원 등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에 군은 자연정화활동에 필요한 비품을 지원하고, 차량이동과 관내 식당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는 등 양 기관의 상생노력이 눈길을 끌었다. 당일 관내 상가의 매출액도 대폭 증가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행사를 통해 상무대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안보지킴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군은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고 도움이 되는 상생파트너로서 우의를 다졌다.

일손 걱정 없는 '농촌인력지원센터' 문

지난 3월부터 장성농협과 삼서농협에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촌 인력을 연결해 주는 '농촌인력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를 통해 군은 농사철 일손 부족으로 애를 태워 온 농가의 걱정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군은 지난 1월 공개모집을 통해 장성농협과 삼서농협 두 곳을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군과 농협 관계자는 전담인력 채용, 사무실 조성, 운영방안 등 준비 작업을 거쳐 3월부터 인력 소개 업무를 시작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일손 수요가 몰리는 농사철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의 구직자들에게 농산업 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군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인력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비와 인력 운영비를 지원한다. 특히 농촌지역 특성상 농작업 장소로 이동할 때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해 인력 수송비가 별도로 지원된다. 또한, 근로 인력들이 농사일을 능숙하게 다루도록 농작업 교육도 실시해 농촌 인력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인력지원센터의 운영으로 농민들이 해마다 겪어 온 일손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농산업 분야 일자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구직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4월 5일 유두석 군수는 농촌인력지원센터 직원들과 함께 면담을 나누었

참여대상 : 일자리참여자, 자원봉사자,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

접수방법 : 방문 접수 (2회차부터 유선 접수 가능)

일자리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 알선 수수료 무료
- 출퇴근 교통비 지원 및 숙박비 지원
- 상해보험료 무료 가입 : 농작업 참여 신청일부터 1개월 간 상해보험(보상액 최고 3,000만 원 가입 지원

※ 인건비는 농가가 작업 종료 시 일자리 참여자에게 사전에 협의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인건비 협의 및 지급은 관여하지 않음.

찾아오시는 길

장성농협 농촌인력지원센터 (장성읍 청운2길 18) ☎ (061) 394-5100
삼서농협 농촌인력지원센터 (삼서면 해삼로 1141) ☎ (061) 399-1323

'옐로우 마이크' 잡고 '나도 아카데미'

군민의 생각을 모으고 함께 소통하는 장으로 변화

매주 목요일 명사들을 초청해 열리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일반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 16일 열린 제987회 장성아카데미 무대에서 일반인들이 5분 동안 자기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옐로우 마이크'가 첫 선을 보였다.

'옐로우 마이크'는 22년 간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을 청강해 온 군민과 공직자들이 청중에서 화자로 변신하여 함께 소통하고 생각을 나누는 자리이다. 이 날 첫 '옐로우 마이크'를 잡은 주인공은 장성읍 용강리에 사는 이판준 어르신(74세).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건강한 장성사람이 건강한 장성을 세운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 큰 박수를 받았다. 자유로운 주제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이는 장성군 평생교육센터(061-390-8577)로 문의하면 된다.

'옐로우 마이크'는 평소 군민의 군정 참여를 강조하는 군의 방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장성의 소통 문화를 확산시키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1995년 첫 강연이 시작된 이래 900여 명의 저명인사들이 강단에 서며 그 명성을 이어온 '장성 아카데미'가 오는 6월, 1,000회를 맞이한다.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추구해 온 아카데미는 이번 1,000회를 맞이해 특별한 행사로 군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장성 농업인 6명, '전남 농업을 빛낸 사람들' 70인

지난 3월 31일 전라남도가 주최한 '전남 농업을 빛낸 사람들' 70인에 윤영환, 남상도, 오재곤, 강용, 김재식(故), 임종국(故) 등 6명이 선정되었다.

전라남도는 광복 70년, 전남 농업 70년을 맞아 어려운 여건에서도 창의적인 사고, 불굴의 의지로 전남 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70명을 선정하여 '전남 농업을 빛낸 사람들' 인물선에 수록했다.

인물선에 수록된 농업인들은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도, 신기술 개발 또는 새로운 시도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전 · 현직 농정국장과 외부 전문가, 집필진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시군별로는 보성 · 장성이 각 6명, 담양 · 고흥 · 강진이 각 5명, 순천 · 나주 · 광양 · 화순 · 해남 · 진도 등이 각 4명, 구례 · 영광 3명 등으로 장성이 22개 시·군 중 최다 인원으로 선정 되어 자긍심을 높였다.

장성을 빛낸 농업인

원예 분야(사과)

윤영환 (72세, 장성읍)

사과 불모지 장성에서 사과재배에 성공. 신소득작목, 브랜드 마케팅, 가공상품 개발 등 새로운 시도를 지속함.

친환경 분야(농촌운동)

남상도 (58세, 남면)

장성농민회를 중심으로 80년대 한국형 농민운동의 선구자. 친환경축산환경 조성에 기여함.

친환경 분야 (유통 · 가공)

강 용 (50세, 남면)

80년대 유기농업의 당위성을 알리며 젊은 농군 그룹인 '학사농장'을 개척 운영함.

축산 분야(양돈)

오재곤 (54세, 북일면)

한국형 종돈 개발 등 선진양돈 경영의 선구자. 친환경축산환경 조성에 기여함.

식량작물 분야(벼)

김재식 (故, 장성읍)

일본에서 벼품종을 들여와 육종, 농업 관련 서적을 발간해 무료 보급함.

산림 분야 (임업)

임종국 (故)

1956년부터 20여년 간 서삼면, 북하면 등 569ha에 253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숲'을 조성함.

옐로우시티 붕붕카를 불러주세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서비스

장애인이나 임산부 같은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 온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서비스'가 올해부터 확대 운영 중이다. 군은 지난해 4월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전용 차량 1대를 위탁 운행해 왔다. 이 후 이용 수요가 한 달 평균 100건을 상회하며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올해는 차량 1대를 추가 증차하고, 그에 따른 운영인력도 두 배로 늘렸다.

이동지원 차량서비스의 확대는 장애인,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가 교통제약 없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군은 교통약자를 위한 든든한 '발'이 되는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운행시간 : 연중 운행
- 월 ~ 금 : 09:00 ~ 18:00(단, 긴급상황 발생 시 연장운행 가능)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사전예약(1일전) 에 의해 운영

이용대상 : 1 · 2급 장애인,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 동승 가능

이용요금 : 일반택시 요금의 30%

- 기본요금 : 2km까지 1,000원
- 주행요금 : 146m당 30원, 35초당 30원
- 대 기 료 : 30분당 2,000원
- 콜 요 금 : 무료
- 고속·유료도로 통행료 : 위탁기관이 부담

이용신청 :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1899-1110)를 통해 예약

국립 심혈관센터, 장성 건립 '청

제19대 대선 전남지역 공약 대토론회서 현안과제에

국립 심혈관센터 장성 건립 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립 심혈관센터는 심·뇌혈관계 질환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예방적 치료 연구가 가능한 시설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성군은 광주연구개발특구(장성 나노산업단지 주변) 165,000㎡ 부지에 총사업비 3,500억 원으로 5,000㎡ 규모의 연구센터, 연구병원, 예방 및 재활센터를 갖춘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2007년 5월 전남대병원과 함께 국립 심혈관센터 장성 유치를 발표하고, 1만 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국립 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7대 대통령 선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채택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에, 군은 올해 들어 국립 심혈관센터 장성건립을 위해 실무추진위원 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5일에는 광주·전남연구원이 주관한 제19대 대선 전남지역 공약 대토론회에서 '국립 심혈관센터'가 현안과제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으로도 군은 국립 심혈관센터 건립을 위해 장성이 최적의 입지임을 설명하고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여 제19대 대통령 정책공약 및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에 반영되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노란 꽃으로 하나 되는

장성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장성은 '옐로우시티' 라는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내며, 꽃으로 도시를 디자인하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노란색과 가장 어울리는 계절, 봄을 시작으로 사계절 내내 장
물들이는 '노란 꽃'들

사계절 연중 황금 물결을 장식하는 '노란 꽃'

3~4월에는 노란튤립 · 금계국 · 유채꽃, 5～9월에는 메리골드 · 백일홍 · 해바라
10월에는 국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겨울팬지를 심어 연중 노란색 꽃이
짝 핀 꽃동산을 조성한다.

진출입로와 도로변을 달리는 황금빛 드라이브

군은 주요 진출입로와 도로변에 황 금빛 초화류와 수목 등 50만 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주요 식재 장소

- 단광 IC 절개지 중심 교차로 주변, 장성댐～황룡강 5km 구간 뫼 강과 어우러진 휴식공간
- 축령산(서삼면 추암리)과 홍길동테마파크(황룡면 아곡리) 사이, 동화면 전자농공단지 진입로 뫼 명품 황금가로수길
- 서삼면 장산리 임곡마을, 동화초등학교 뫼 지역 쉼터와 명상의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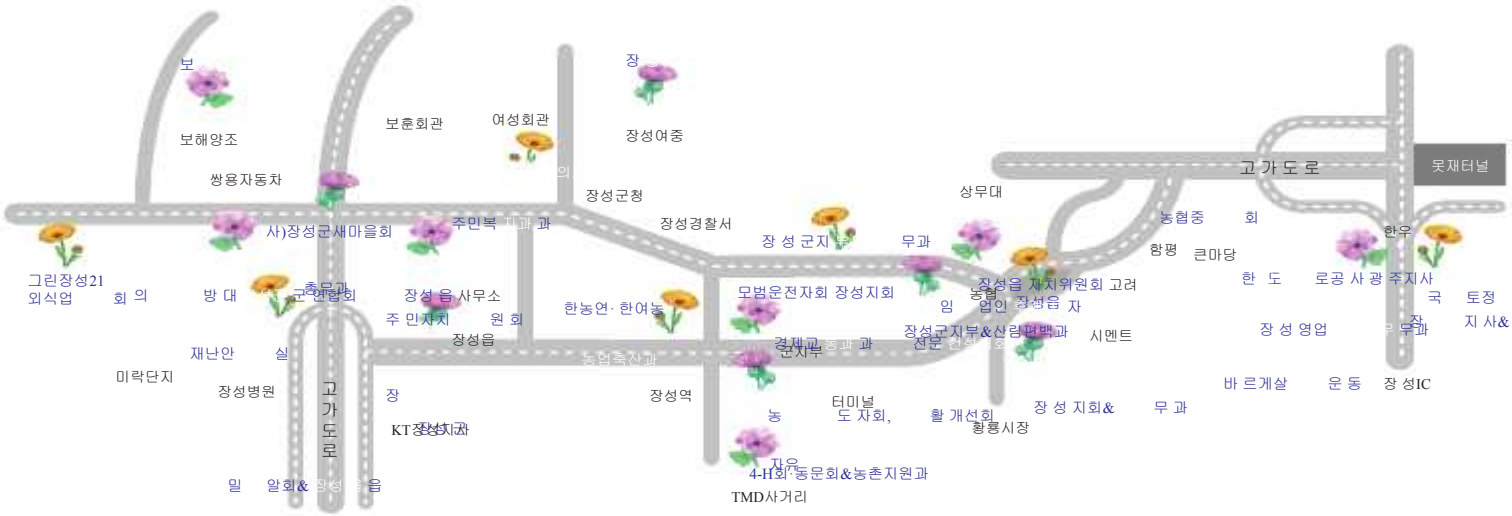
양질의 꽃묘 재배 와 예산절감 효과

군은 옐로우시티 조성 사업에 필요한 꽃을 화훼 농가로부터 구입하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해 조달 하고 있다. 대량의 꽃 을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에도 기여한다.

또한 꽃묘 생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품질향상 교육과 선도농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철저한 검수 · 평가제를 도입해 품질을 균일화하여 양질의 꽃묘를 생산하고 있다.

장성읍 꽃동산 만들기

장성IC 입구부터 시작되는 꽃동산에는 20개 단체, 900여 명이 참여해 연중 직접 꽃을 심고 가꾸어 나간다. 군은 사회단체와 유관기관, 주민과 협력해 별도의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옐로우시티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며 '민관협력 네트워크(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읍면 옐로우시티 추진 다짐 결의대회

"산뜻한 옐로우시티 출발을 알립니다"

읍·면의 적극적인 거버넌스 참여

전 읍면별로 더욱 아름다운 옐로우시티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마을 곳곳에 노란 꽃밭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진원면

서삼면

면

북일면

북하면

삼계 면

스타일틀이나 제목

교감

눈부신 꽃들은 겨울 뒤에 피어난다

休

복수초(福壽
부유와 행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
이른 봄 산지에서 눈과 얼음 사이를 뚫고
꽃이 핀다고 하여
'얼음새꽃', '눈새기꽃'이라고 부른

사진제공_ 고 재 훈

STORY #01

“숲이 주는 치유와 믿음, 그리고 마음을

장경란 _ 장성군 황룡

현대인의 하루는 무언가에 쫓기듯 원하지도 달려가다 저만치 멀어졌음을 알기도 한다. 그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버리고 한 박자 쉬어야 함을 느낀다. 쉼을 숲에서 찾기를 간절히 권하는 장경란 씨를 만나봤다.

이끌리지 않고 느리게 걷기

청주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던 그녀는 건강 회복을 위해 이주를 생각하던 중, 우연히 텔레비전 연 피톤치드가 가득한 축령산 편백나무 숲을 보고 장성으로 이주를 결심했다.

2011년 장성으로 내려온 그녀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축령산과 함께했다. 그녀는 점심과 저녁까지 싸들고, 매일 아침 9시면 축령산에 도착해 왕복 7~8km를 걸었다.

“축령산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끌리지 않고 발 닿는 감촉이 느껴지는 대로, 피톤치드의 향이 로 걸으며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됐어요. 걷다가 쉬고 싶으면 쉬고, 밥을 먹기도 하고, 또 다시 걸었어요. 이런 큰 산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갈 수 있는 내 정원이라고 생각하니 행복했어요. 그리고

딸과 아들 나무, 친구 나무... 그리고 나무를 안고 '○○아! 사랑 한다'라고 말해줬어요. 나무도 살아있고, 지금 나도 살아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숲에서 얻은 또 하나의 선물, 숲 해설가

그렇게 자연에서 5년이란 시간을 보낸 것이 곧 마음을 치유하고, 몸을 추스르는 시간이었다는 그녀. 그리고 숲은 그녀를 인생의 제2막으로 안내했다. 숲에서 만난 숲 해설가 선생님의 영향으로 숲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이력서 쓰는 법, 다양한 상담을 통해 숲 해설가에 지원하게 되었다. 현재 그녀는 국립장성숲체원에서 일반인과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숲 해설가로 활동 중이다. 그녀가 숲에서 얻은 경험들을 다양하게 소개하며, 그들 앞에서는 더욱 겸손하게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우물 밖을 벗어난 개구리에게 천혜의 삶의 터전이 습지였듯이 저에게는 축령산 숲이 습지가 되었어요. 저는 축령산, 방장산, 황룡 우드랜드 등 천혜의 숲에서 나오는 대한민국 1등 산소를 전 국민이 마실 때까지 숲을 알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러한 숲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숲 해설가들이 설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STORY #02

“감사함을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삶”

진순자 _ 서삼면 여고금계길

서삼면 금계리 봉연마을. 예부터 봉황이 내려앉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곳이 행운을 다주는 마을이라 여기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진순자(68세) 씨. 이 마을에서 새롭게 시작한 그 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자연이자 선물이다.

모든 일에 감사함을 생각하게 만든 집

그녀와 남편(박윤기, 70세)는 6년 전 도시생활을 접고 장성으로 이주했다. 평소에 부부는 축령산을 자주 찾으면서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장성에 살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그러다 찾게 된 집이 바로 이 집이에요. 이 집은 대학교 건축교수가 직접 설계하고 만든 집이였대요. 방 안은 건강에 좋은 황토로 만들었고, 최대한 자연과 가깝게 설계된 집이에요. 사정이 생겨서 내놓게 된 이 집을 저희가 들어오게 된 거죠. 남편과 저는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어서 그 자리에서 결정해 버렸어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게 된 그녀와 남편. 걱정과 근심은 잊어버리고 이 집을 하나씩 꾸미는 데에 집중했다. 작은 텃밭도 가꾸고, 좋은 날 나와서 꽃잎 차를 마실 탁자도 설치

했다. 집 뒤편에는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는 나무 밑 평상도 만들고, 심지어 남편은 땅을 조금씩 파더니 자연 토굴을 하나 만들어 음식도 보관할 수 있게 했다.

"이 집에 오고 나서는 축령산에서 텐트를 치고 잘 때 은 공기를 마셨던 기분을 계속 느낄 수 있었어요. 멀리 나가지 않아도 늘 자연과 함께 살고 있는 거에요. 이 집에 살면서 복잡한 생각은 다 버렸어요. 꽃이 피면 꽃에 감사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늘 내 옆에서 함께 해준 우리 남편에게는 더 감사했지요."

마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

그리고 그녀가 또 감사한 것은 바로 마을 주민들이라고 했다. 도시사람들이 처음 이주를 앞두고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마을주민들과의 관계라고 하는데 그녀는 그런 걱정을 한 순간에 싹 잊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저도 남편이 밖에 나가면, 집에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요. 그럴 때면 경로당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거기서는 제일 막내더라고요. 경로당에서 밥이랑 반찬이랑 해서 같이 먹고, 어머님들이 밭에 좋은 거 심으셨다고 저한테 막 가져다 주시곤 하세요. 어찌나 감사하던지."

부부는 이제 마지막 평생을 이 곳에서 함께하며 감사함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고 싶다고 했다. 따스한 봄날, 부부의 희망과 밝은 미소 덕분이었는지 볕은 더 반짝반짝하게 집을 비추고 있었다.

요월정_황룡면 황룡리 소재 누정

누정 (樓亭) 과 모정 (茅亭) 사이

장성읍 오동촌마을 모정

김승희 _ 문화관광해설사

누정과 모정 사이는 냉정과 열정 사이처럼 간극이 멀다. 한 쪽은 날카로운 지성을 토론하고 냉정한 판단력을 요구하는 중재의 장소였고, 다른 한 쪽은 여름날 지친 심신의 열기를 달래는 곳이었다. 누정과 모정은 천형과도 같았던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그 둘 사이의 숙명은 누정과 모정의 용도와 생김새로도 구분할 수 있었다.

누정의 역사는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와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기록된 누정의 숫자만 885개소에 이르렀다. 누정은 누각과 정자가 결합된 형태로 보통은 너른 마루와 작은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궁이가 있어 군불을 지필 수 있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에 관계없이 자연과 물아일체를 꿈꾸었던 선비들의 자연관이 날씨도 초연하게끔 건축에 투영된 것이다. 이는 자연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자 했던 선비들의 소망이었다.

"편안한 삶, 다툼이 어찌 내 분수에 편안만 하리오.
도리어 늙어서는 세상 피하여 사는 것만 못하리라.
오래 사는 법을 배우려 하시려면
자연을 찾아 한가하고 소탈한 것이나 배워 보시오."
- 김시습 「 夜深 」 -

누정을 짓는 선비들의 마음은 자신, 자연 그리고 이상향의 조건을 담는 것이었다. 자연에 묻혀 잠시 세속을 등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그들은 누정문화를 척박한 삶의 회피로만 여겼었을까?

그렇지만은 않다. 앞서 언급한 대로 누정은 냉정의 장이었던 만큼 선비정신을 바로 세우는 강학의 장소이기도 했다. 그곳에서 향촌의 크고 작은 사건이나 갈등을 중재하기도 하였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선비정신을 곧추 세워 의병의 결의를 다지며 장엄하게 통문을 발표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유독 전라도에 의병이 많았던 이유는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누정문화의 공이 지대하다. 그들은 누정을 통해 호국의 의지와 단결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겼다.

이와 다르게 나라가 태평한 채로 흘러 돌아갈 때는 지역의 선비들이 모여 시단을 형성하였고, 그들의 시연은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문장가들의 발길을 잡아끌며 호남 가사 문학의 시발점이 되었다. 호남의 시가 문학은 조선의 시가 문학으로 대표될 수 있을 만큼 시가 문학에 있어서 호남의 시가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었다. 누정을 짓고 자연을 소일했던 선비들이 몸과 머리를 일체화 시켰던 장소가 누정이었다.

관수정_삼계면 내계리 소재 누정

장성읍 안평리 모정

누정과 다르게 모정은 열린 공간이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다수의 민중들이 피서와 휴식을 목적으로 한 마을 공동의 공간이었다. 모정은 글자 그대로 초가를 얹은 소박한 정자로 방이 딸리지 않고, 마루 뿐인 건물로 사방이 뚫려있어 한 여름의 열기를 식히기에 맞춤한 장소였다. 보통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에 모정을 지었다. 민중들은 한해 농사의 처음과 끝을 축제로서 마무리 하였고, 그들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모정 옆 당산 나무에 기록하였다.

모정의 역사만큼 추억도 깊었다. 모정에서 농사의 시작과 풍작을 기원하며 징, 꽹과리, 장구, 북 등을 울려퍼지고 한 바탕 놀음이 시작되면 모정과 당산을 돌고 집집마다 뱅이를 돈다. 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하고 그 논에 쏙쏙 돋아지는 잡초를 매고 나면 다음은 하늘과 땅이 알아서 할 일. 그때가 되면 불볕 노동이 거의 끝나고 비로소 머슴은 장가를 간다. 백가지 나물을 먹고 가장 농사가 잘된 집의 머슴은 잔뜩 대접을 받는다. 모정 옆에 솥을 걸고 음식과 술을 걸판지게 잡아당기며 민중들은 부른 배를 드러내고 모정에 얼기 설기 누워서 낮잠을 잔다. 들판의 초록은 여물어 가고 태양은 한창 독이 올랐다. 모정은 시원했다.

호남은 땅이 넓다. 그 넓은 땅을 경작하고 살았던 민초들은 땅이 내어준 풍요로운 물산과 더불어 넉넉한 마음도 함께였다. 그들의 공동체 의식이 타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모정이라는 독특한 공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자연과 상생을 해왔다. 일제 강점기를 전·후로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공동 집결소들은 사라졌지만, 유독 호남의 모정은 아직까지 살아남아 마을을 지킨다. 모정은 등록되지 않은 우리들의 문화유산이자 역사 지킴이이다.

누정과 모정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였다. 이보다 더 중요했던 곳이 있을까? 그립고 정겨운 이들도 만나 옆집 백구의 발정난 행동거지에 해결책을 주고받는 열린 공간이 누정과 모정이다. 전자와 후자는 분명 사회적 계층에 따라 모이는 사람들 색깔이 달랐지만, 자연을 느끼고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공동체 의식을 기른다는 점은 많이 닮았다. 평행선처럼 엮일 수 없었던 둘 사이의 간극을 사람들이 이어갔다.

장성아카데미 강연 리뷰

교감

인간, 기생충에게 배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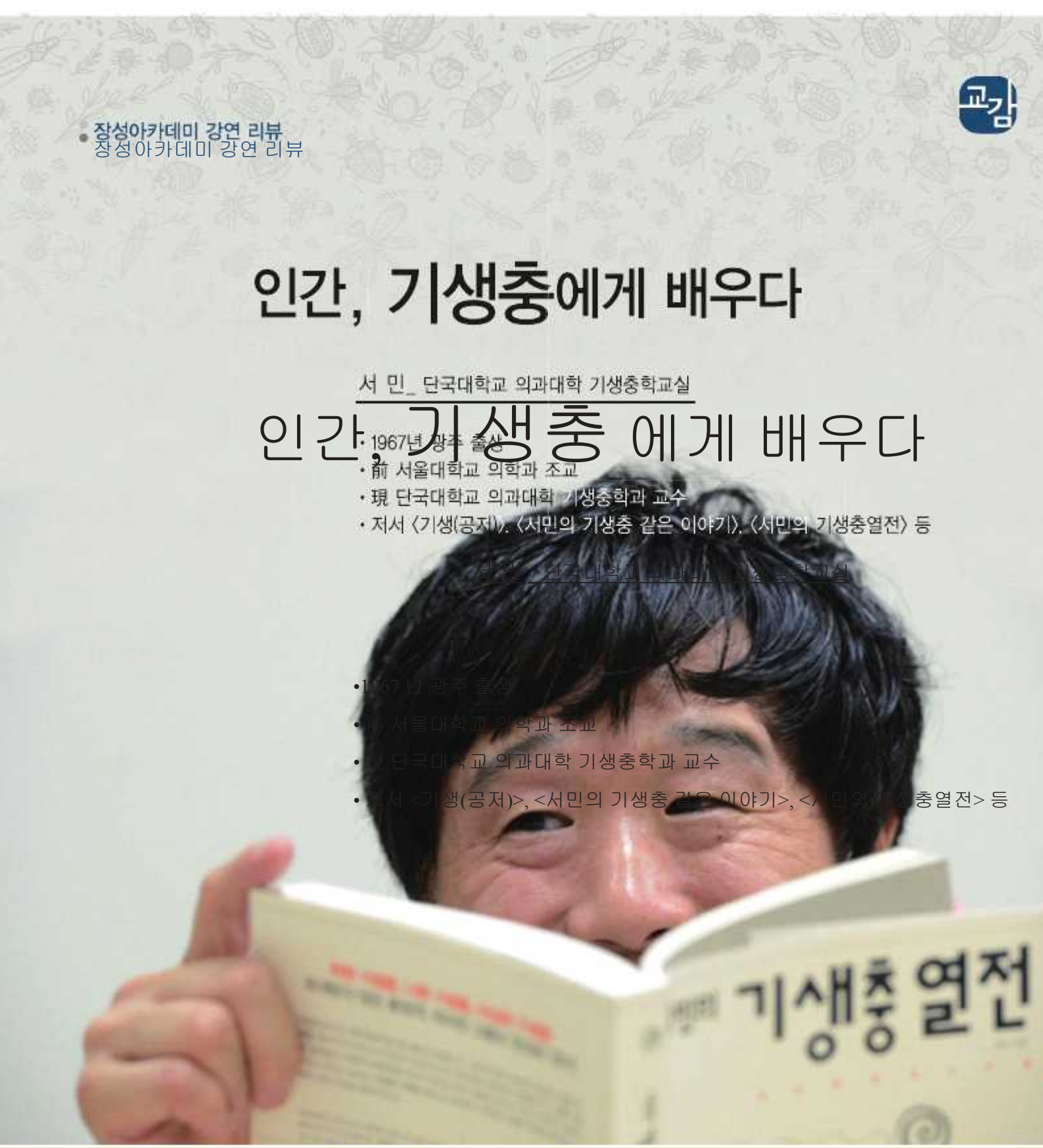
서 민_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인간, 기생충에게 배우다

- 1967년 광주 출생
- 前 서울대학교 의학과 조교
- 現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교수
- 저서 〈기생(공저)〉, 〈서민의 기생충 같은 이야기〉, 〈서민의 기생충열전〉 등

서 민_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 1967년 광주 출생
- 前 서울대학교 의학과 조교
- 現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교수
- 저서 <기생(공저)>, <서민의 기생충 같은 이야기>, <서민의 기생충열전> 등



장성아카데미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 4시 30분부터 6시까지 각 분야의 저
강사로 초빙하여 주제 강의와 토론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983회 장성아카데미에서
'컬투의 베란다쇼', tvN '어쩌다 어른' 등 방송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 서민 교수를 초청
징그럽고 해로운 벌레로 생각하는 편견을 깨고 '기생충'을 통해 '인간'을 돌이켜 생각해보는 유쾌한
가졌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억울한 존재를 꼽으라면 단연 기생충일 것이다. 지난 몇 년을 돌아봤을 때 기생충으로 인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기생충이 거의 멸종하다시피 해서, 주변을 아무리 봐도 기생충 때문에 고생한 이를 찾는 건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기생충은 여전히 혐오의 대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몸이 아플 때 기생충 탓을 한다.

어떤 분의 사연을 보자. "항문이 가려워요. 기생충약 먹어야 할까요?" 항문이 가려운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항문을 잘 씻지 않는 행태다. 그럼에도 이분은 항문 씻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단 그 원인을 기생충에게 돌린다. 물론 항문을 가렵게 하는 요충이란 기생충이 있지만, 이건 10세 미만의 아이에게만 있는 기생충이며, 이 기생충이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이유도 모성애 때문이라 이해해 줄 여지가 있다. 밥을 먹어도 금방 배가 고프다며 기생충이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은 더 황당하다. 기생충이 먹어봤자 하루에 밥풀 몇 톨에 불과한데다 기생충이 몸안에 있다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대변에서 나온 식물의 줄기를 보고 기생충이 아니냐고 발끈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생충이 나름대로 완벽한 체형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런 이댐은 서운하기까지 하다.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다. 다른 동물들 역시 몸에 기생충이 있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아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 몸을 비비며, 독한 풀을 먹기도 한다. 기생충이 주는 피해에 비해 이렇듯 반응이 과도한 이유는 크기가 눈에 식별될 만큼 큰 데다, 외모 또한 호감형이 아니기 때문이리라.

그럼에도 기생충은 오랜 기간 지구상에서 버텨왔다. 기록된 증거만 해도 3억 년 이상이니 기껏 20만 년 남짓한 인간이 감히 비교할 바는 아니다. 숙주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버틸 수 있었던 기생충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기생충이 숙

주와의 공존을 꾀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시금치를 먹고 걸리는 기생충이 숙주를 죽인다면, 혹은 빈사상태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면, 그 숙주는 다시는 기생충을 먹지 않을 테고 숙주에 가지 못하는 기생충은 멸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비결은 기생충의 놀라운 상상력에 있다. 연가시를 보자. 장구벌레의 몸을 빌어 육지로 나가긴 했지만, 연가시는 원래 물속에 살던 기생충이라 짝짓기와 알낳기를 하려면 반드시 물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곤충이 물가로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런 걸 원하는 곤충은 없다. "어떻게 곤충을 물가로 끌어들이느냐?"는 연가시가 생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멸종하느냐 살아남느냐의 귀로에서 연가시는 곤충의 뇌에 갈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만들어 분비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 정도 창의력을 가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연가시는 지금도 1급수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중이다.

비단 연가시뿐이 아니라,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하는 기생충은 더 많이 있다. 새에게 더 잘 먹히도록 개구리의 뒷다리에 기형을 유발하기도 하고, 달팽이가 새에게 먹히도록 더듬이를 애벌레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기생충도 있다. 개미의 배를 딸기 모양으로 바꾸는 것도 있고, 개미를 소가 먹는 풀에 붙어있게 만들기도 한다. 기생충이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한 이들에게 이런 기생충의 존재는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기생충은 아이들로 하여금 과학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좋은 수단이 된다. 선진국들은 무조건 기생충을 배척하는 대신 기생충박물관을 만든다든지, 기생충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놀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과학의 꿈을 품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생충을 그저 혐오하며, 기생충에게서 배워야 할 점을 외면한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노벨과학상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등 국력에 걸맞은 과학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건 어쩌면 기생충 혐오증 때문일 수도 있다. 기생충에 대해 좀 더 관대한 마음을 갖고, 그들로부터 배울 점은 배우자.

강사님의 강연 소감

"현대식으로 지어진 넓은 강의실이 있었고,
참석한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들어주셔서
강의할 때 신이 났
이런 강연이 매주 열린다는 사실에 더 놀랐으며,
이것만으로도 '장성은 좋은 곳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홍길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홍길동 테마파크

허균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홍길동은 많은 역사학자들의 연
인물이 아닌 실존인물로 밝혀졌다. 태어난 곳은 지금의 장성군 황룡면 아치실로, 생가터가 그대
다. 최근 영화, 드라마, 연극 등으로 제작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장성의 자랑, 홍길동을 만나러 가보

①

②

① 홍길동 광장 분수에서의 물놀이는 아이들에게 인기다

② 산채체험장은 활빈당의 산채를 재현하여 전통체험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한다.

③ 전통한옥은 청백리 박수량 선생의 청백리 문화를 체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

홍길동테마파크는 홍길동의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생기
근처에 세워진 복합문화공간이다. 홍길동의 생가와 전시관, 산채체험장
토캠핑장, 전통한옥, 야영장, 수변공원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
봄에 가면 아름다운 유채꽃 풍경을 함께 볼 수 있다.

색다르고 특별한 여행을
경험하고 싶다면
홍길동 테마파크로 오세요!

장성 필암서원 촬영 스케치

MBC드라마 '역적' 홍길동의 고장 '장성'에 떴다

#2

장성에서 펼쳐진 역적 촬영장 이야기

홍길동을 주제로 인기리에 방영 중인 MBC 월화 드라마 ‘역적:백성을 훔친 도적’이 필암서원을 배경으로 촬영되었다. 이 날은 길현(홍길동의 형)이가 양반으로 신분을 속이고 서원에 와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필암서원에 장성 유생 들이 떴다!

장성지역 청년들이 보조 출연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서원에서 유생들이 공부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른 새벽부터 제작진들과 함께 분장을 하며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만들었다.

필암서원 : 하서 김인후(1510~1560)의 높은 절의와 학문을 숭앙하기 위해 그의 문인들이 1590년 전남 장성군 황룡면 기산리에 세운 서원이다

황룡면 필암리 377
☎ (061)390-7527, 394-7240

농악은 농촌의 종합예술 이다

- 삼서면 두월리에 꽃피운 호남우도농악 -

이종범 삼서면 두동마을 이장

푸지게 산 삶에서 우러나오는 농악 가락은 삶 그 자체이다. 농악 소리에 흥취되어 즐거이 노래하고 춤을 추며 농악기를 치다보면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즐겼던 추억이 생각난다.

어릴 적 농악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소리가 나면 뛰어 나갔지만, 어른이 되어 농악 소리를 듣고 함께 해보니 농사 일을 즐기며 일의 능률을 높이는 노동음악이었다. 농악은 하늘과 땅을 이루는 자연에 감사하며, 마을의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종합예술이다.

호남우도농악은 최화집(1878~1859) 선생께서 창시하고 보존 중이다.

매년 정월대보름날 두동마을은 후계자들과 젊은 남녀가 함께 농악을 계승하고자 틈틈이 연습하고 풍년과 건강을 비는 당산제와 마당밟이와 어우러진 농악소리가 울려 퍼진다.

당산제, 마당밟이 때 준 복돈이 꽤 많이 모아지면, 주민들과 함께 점심 대접을 나누고 남은 돈은 농악기 구입 · 보수 등 농악 기금으로 사용된다. 앞으로 우리 두동마을은 예부터 기리 이어져온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전통 문화 계승에 앞장서 노력할 것이다.

호남우도농악은 최화집 선생께서 창시하고 보존 중이다. 이후 후계자인 전경환(영광), 이태헌(장성), 이경헌 · 정득채(함평)로 그 업적을 이어가고 있다. 우도농악은 호남선 서쪽편으로 장성, 영광, 함평, 부안, 고창, 무안, 목포 등지에서 뿌리내리게 되었다.

우도농악의 특징은 쇠가락 기교의 변화가 많고, 여성적인 부드러움이 있다. 앞치배 상쇠의 상모(부포)를 돌려서 세워 꽃송이처럼 방실방실한 놀이와 징부터 소고까지는 고깔을 쓰고, 뒷치배 잡색(포수, 노리중, 양반, 할멈 등)놀이가 따르는 것이 특징이다.

두동마을은 최화집 선생이 주무대로 활동하여 많은 전수자를 배출했으나 객지로 떠나고, 후계자 이태헌과 전수자 이계화 · 이계구가 남아 전수해 왔다. 이후 임수동 선생이 귀향하여 2010년에 전

상 림 골

하얀

여름 오면
풀 향기 솔바람에 날리어
이맘 먼 그리움에 젖는다.

빨간 서녘 해
알마산 능선에 걸쳐
쉬엄쉬엄 지노라면
상림골 숨결담은 농심은
어둠에 묻혀 고달픈 시름에 잠긴다.

우형우내복기시
寓形宇內復幾時

이 몸을 세상에 깃들일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

갈불위심임거류
曷不委心任去留

어찌 가고 머무름을
마음 꼬는 대로 하지 않으리.

-도연명의 「 귀거래사(歸去來辭) 」 중에서-

효산 양재춘 _ 장성향우

- 장성 황룡면 출신
- 한양대학원 경영학과
- 서울시청 재임
- 현) 효산서실 운영
- 경기도도립노인요양원 서예강사
- 한국서예미술진흥협회 초대작가
- 한국미술협회 초대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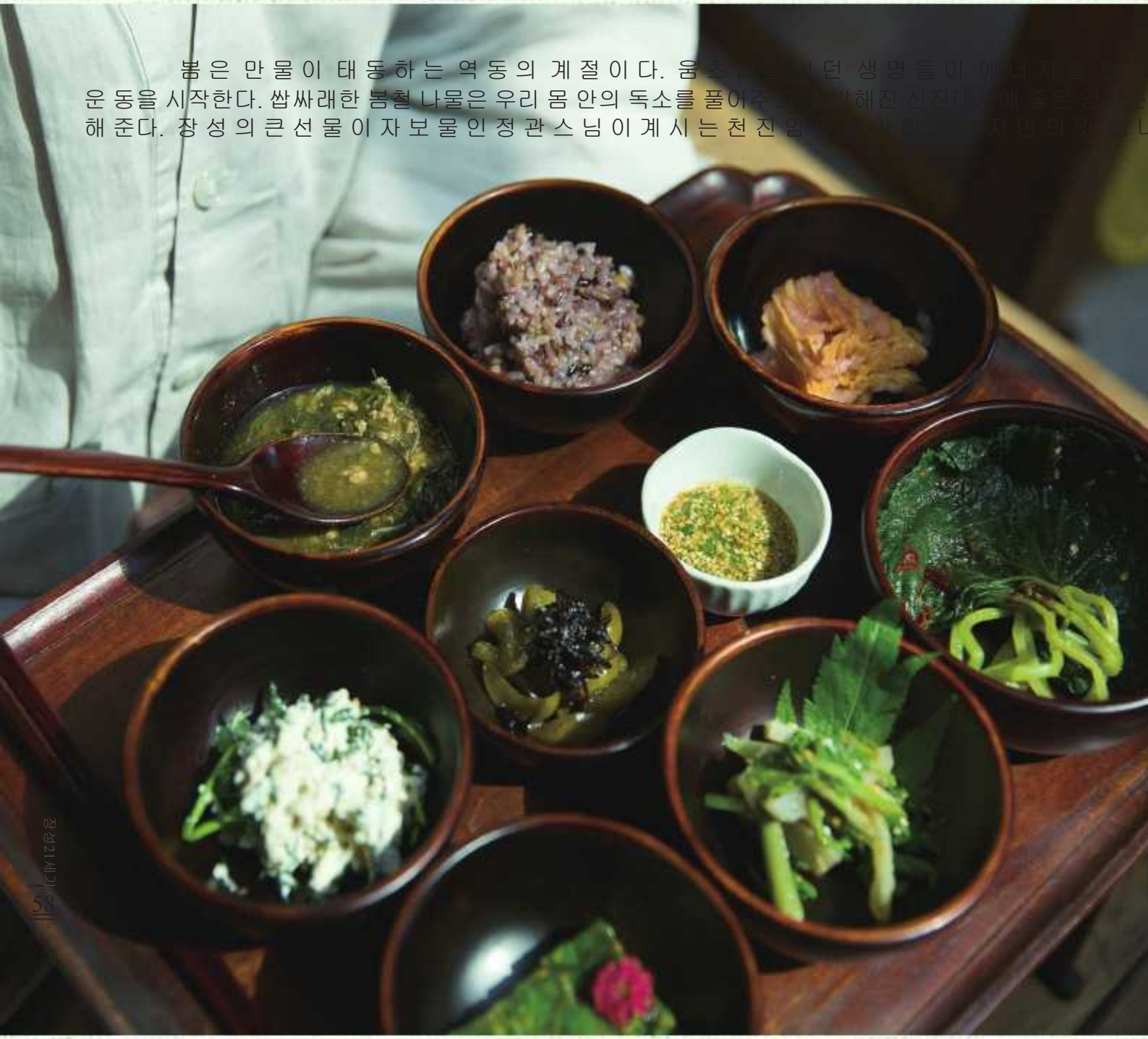
오감
입안 가득 봄내음

봄나물

청정한 자연을 담은 밥상
정관 스님의 사찰 음식

사 찰음식을 배워보자.

사진_ 조 경 원 (장성사진작가협회)



봄은 만물이 태동하는 역동의 계절이다. 움츠리고 있던 생명들이 에너지를 발산하며 운동을 시작한다. 쌉싸래한 봄철 나물은 우리 몸 안의 독소를 풀어주고 활성화해진 신진대사에 좋은 영향을 해 준다. 장성의 큰 선물이자 보물인 정관스님이 계시는 천진암 [illegible] 자연의 맛을 느

머위, 땅두릅, 톳, 소미역(곰피), 미나리, 당귀, 쑥, 냉이 등 8가지 봄나 물 을 준비한다.
양념재료는 오미자청, 들깨가루, 녹차가루 등 발효즙과 자연조미료를 만들어 사 용한다.

쑥버무리 (쑥, 냉이, 메밀가루, 밀가루, 현미쌀가루, 소금, 간장)

1. 다듬어 씻어 놓은 쑥을 큰 그릇에 넣고 메밀가루, 밀가루, 쌀가루를 뿌려 버무리며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한다.
2. 찜기에 천을 깔고 버무린 쑥을 10분 정도 찐다.
3. 중간에 냉이도 함께 넣어 다시 찐다.

머위 된장찜(머위, 된장, 복분자청, 들기름, 자른 고추, 조청

1. 머위를 다듬어 씻은 후 끓는 물에 데친다.
2. 데친 머위를 건져내 물기를 빼고 양념을 바를 수 있게 편다.
3. 위의 재료로 양념장을 만들어 머위 위에 바른다.

톳두부무침 (두부, 톳, 소금, 간장, 참기름, 참깨)

1. 두부는 소금을 넣고 으깬다.
2. 톳을 끓는 물에 데쳐 건져낸 후 물기를 뺀다.
3. 큰 그릇에 두부와 톳, 참기름, 간장을 넣어 섞은 후 깨를 뿌려 올린다.

봄나물 묵

봄나물(소미역, 땅두릅, 쑥, 냉이,

오미자청, 탱자청, 들깨가루, 참깨

1. 봄나물들을 다듬어 데친 후 물기를 빼고 잘게 썬다.
2. 큰 그릇에 다진 봄나물들을 위의 재료를 넣고(한천가루 제외) 잘
   무린다.
3. 냄비에 찬물과 한천가루를 넣고 간장, 오미자청으로 간을 해 끓인
   물을 넣으며 농도 조절을 하고 계속 젓는다.
4. 적당히 굳어지면 버무려 놓은 봄나물과 섞고, 볼에 담아 냉
   얼린다.
5. 얼린 묵을 꺼내 먹기 좋게 썰고, 양념장에 찍어 먹는다.

봄나물 겉절이

봄나물(냉이, 미나리, 쑥, 당귀), 된장, 고춧가루, 매실청, 감식초, 녹차
가루, 들깨가루, 대봉감

1. 봄나물들을 깨끗이 씻어 다듬는다.
2. 큰 그릇에 담아 위의 재료를 넣고 함께 버무린다. 여기에 오랜 김칫
   독에 함께 묵혀둔 대봉감을 넣어 단맛을 가미한다.

땅두릅나물 (두릅, 참기름, 간장

1. 땅두릅을 다듬어 끓는 물에 데친 후 물기를 뺀다.
2. 간장과 참기름으로 간을 해 무친다.

백양사 천진암 주지 정관스님의 사찰음식은 해외 유력언론에서 '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음식'이라고 극찬을 받으며 큰 이슈가 되었다. 정관스님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만들지 정해놓지 않는다. 식재료 하나 하나의 본질을 알고 자연 그대로의 맛에 집중하며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낸다. 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음식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최정상 셰프들의 삶과 철학을 담은 해외 다큐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식재료가 가진 근본을 알고 이해하며,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육신이 있어야 마음이 있고,
육신이 청정해야 마음도 청정해집니다
육신으로 들어오는 음식은 내 몸의 전체입

▲뉴욕타임스(NYT)
'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음식' 소개
▲미국 공영방송 PBS-TV 요리프로그램
▲기업 넷플릭스(Netflix)의 음식 다큐멘
'셰프의 테이블' 시즌3 출현
▲2017년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초청

장성 백양사 템플스테이 | 장성하면 백양로 1239 ☎ 061-392-0434

40년 경력 셰프와 장성이 만났다!

건강한 자연 맛집 '강마루 돈가스'

장성 북이면 사거리 전통시장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었던 비주얼과
건강한 맛을 함께 담은 돈가스 집이 인기다.
40년 경력의 셰프 농부가 직접 재배한 재료를
이용해 소스부터 드레싱까지 장성의 향을 담아낸
돈가스! 그 맛이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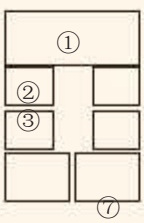
'셰프 경력 40년 + 장성 귀농 6년차'가 만들어 낸 최고의 조합 !

가게에 들어서면 깔끔한 내부와 그와 어울리는 말끔한 복장을 갖추고 요리를 하는 강상철(61세) 씨
그는 서울 명동과 롯데호텔, 부산, 광주 등 총 40년 간의 주방장 생활을 되살려 작년 12월 말부터 북
이면 전통시장에서 '강마루 돈가스'를 운영 중이다. 그가 장성 북이면으로 귀농하여 자연주의 농법
로 과수농사 를 시작한 때는 6년 전. 요리만 해온 그에게 농사는 쉬운 일만은 아니였다. 지금은 직접
농사 를 지은 복 분자, 오디, 대봉감, 사과 등 을 이용해 특제 돈가스 소스와 드레싱을 직접 만들면서
사의 경험 또한 값진 선물이 되었다.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비록 시골시장의 평범한 돈가스지만 다녀가시는 분들이 과분한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장성으로 귀농해서 감사하다는 말도 남겨주십니다. 그럴 때면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전
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손님들께 건강한 장성의 맛을 제공하는 대표식당이 되어 북이 전
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건강과 맛, 저렴한 가격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강마루 돈가스. 싱그

웰빙음식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②③ "손님들이 어마어마 해요"

④ 해산물을 넣은 봉골레스파게티

⑤⑧직접 만든 후식 호두양갱

⑥ 착한 가격에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스테이크

⑦ "맛있는 돈가스 한번 드셔보세요"

[redacted]

① 장성사과로 만든 특제 소스와 복분자 겨자소스도 함께 찍어먹으면 느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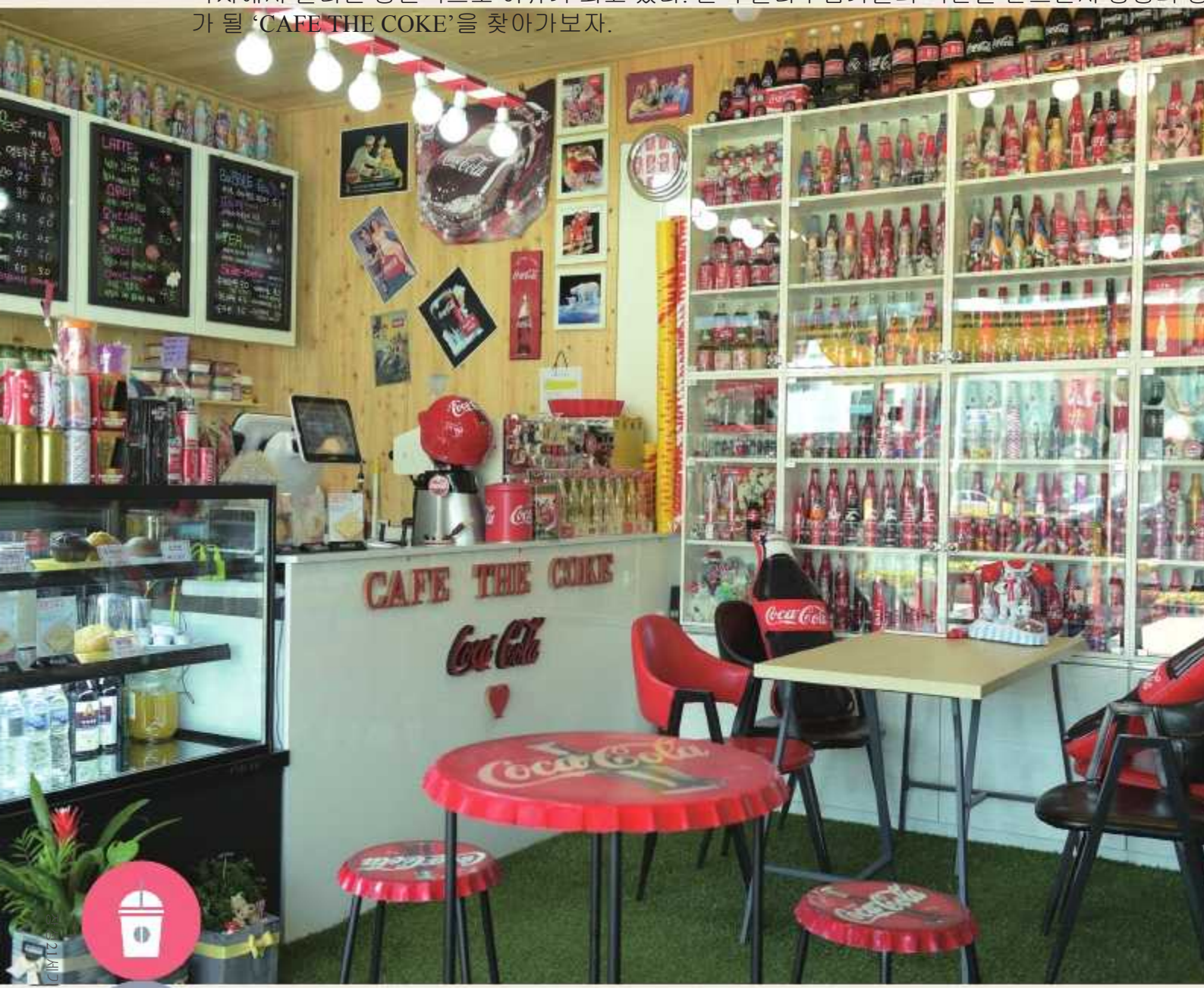
북이면 사남북길 22 (사거리전통시장 내) ☎ (061)392-9991

※ 매주 월요일 휴무, 예약주문하시면 더 맛있습니다!

콜라 톡톡! 아이디어 톡톡!

장성역 ‘CAFE THE COKE’ 콜라 카페

지난 2월 제주, 경기도 일산에 이어 전국에서는 세 번째로 콜라카페가 각지에서 몰려온 방문객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전국 콜라수집가들의 극찬을 받으면서 장성의 명가 될 ‘CAFE THE COKE’을 찾아가보자.



병콜라, 캔콜라, 벽시계, 문구류, 전화기 등 총 2,500여 점이 벽면에 모두 전시

장성읍 역전로 87, 장성역 내 ☎ 010-9923-4444, 010-9221-3471

이 카페의 운영자 박창환(36) 씨와 콜라수집가인 김용은(37) 씨는 장성이 고향
씨는 8년 동안 하루도 쉬지않고 콜라병과 캔, 한정판 용품까지 국내외 경매사이트를 뒤져가며 어마
한 양의 콜라제품들을 집안에 모아왔다. 이 두 청년의 아이디어로 천정에서부터 바닥까지 콜라를 이
한 카페를 만들면서 집 안에서만 묵혀있던 콜라골동품들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 특이한 아이템으로
들어 낸 이색카페를 장성에서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동인구가 많은 다른 지역도 생각해 봤지만 고향인 장성을 더 알리고 싶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외지인들이 카페를 오기 위해 장성역을 경유하여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이라 관광지, 맛집까지 덤으로 안내하는 관광안내소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뉴와 간판 디자인까지 노란색을 사용하여 장성을 함께 알리고 있습니다.

tip

장성역과 황룡강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양한 축제와 새로운 도시 '옐로우시티 장성'이 탄생하면서 카페의 등장이 관광장성과 연계되는 촉매제가 될 것 기대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① 금장, 크리스탈 등 100주년 기념 콜라
② 1) 2002년 한일 월드컵 커뮤니티용(금색뚜껑)
2) 1999년 시원시원 한정콜라
③ 마크제이콥스 등 유명 명품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콜라
④ 1981년 영국 찰스왕세자와 다이애나비의 결혼식 기념 콜라
⑤ 커피+콜라 '커피콕', 레몬청+콜라 '옐로우콕', 자몽청+콜라 '레드콕'
3) 2009년 호텔에서만 제공(금색뚜껑)
4) 지금은 볼 수 없는 최초 제로콜라병

꼭 봐야할 카페 전시품&꼭 먹어봐야 할 메뉴

우슬 이야기

이 윤 성
前)대한한약협회학술위원장 現)사거리한약방

우슬은 흔히 쇠무릎 또는 쇠물팍이라고 부르는데, 그 줄기 마디가 소 무릎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슬은 산과 들에 자생하고 있으며, 뿌리를 말려 사용하지만 드물게는 줄기나 잎을 사용하기도 한다. 맛은 약간 시고 씁쓰름하지만 단맛도 조금 함유하였으며, 성분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평평하다.

농촌 사람들은 가끔 우슬 다린 물이라고 가지고 와서 봉을 지어달라고 하지만 어떤 병증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여러 문헌을 다시 참고해 보았더니 그 쓰이는 용도가 동의보감에서 적시한 효능보다 훨씬 더 많았다. 하지만 이를 다 소개할 수가 없고, 또 그리 많이 이용 할수도 없기에 동의보감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효 능

- 몸 속에 맺힌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
- 지 관절 질환에 주로 쓰인다.
- 허리와 디스크(척추) 관련 질환, 특히 무릎 관절
  에 많이 쓰이고, 몸이 잘 붓거나 신장결석으로
  이 시원치 않을 때 쓰인다. 특히, 노인이 소변을
  리거나 자주 나올 때 쓰이기도 한다.
- 혈압을 내리는 작용도 있어 고혈압증에 쓰인다
- 남성의 정력과 뼈 근육의 활동을 도와주고 백발
  치료하고 예방해 준다.
- 간장·신장을 좋게 하고, 뼈 속을 채워주는 작용
  하며 여성의 생리통증에도 효과가 있다.

사용법

보통은 씻어 그늘에 말린 뿌리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자보(滋補)할 때는 술로 씻거나 살짝 쪄서 사용한다.

* 우 슬 주 : 술 을 담가 마시면 허약한 몸 을 도 와주고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 우 슬 차 : 줄기나 잎은 다리가 차갑고 저린 사람이 차로 만들어 복용하면 좋다

* 닭발과 우슬 : 닭발과 우슬은 궁합이 잘 맞아 항암 효과, 동맥경화, 면역력 향상, 혈당 조절, 심장병에도 효과가 있다. 닭발과 우슬을 함께 고아 먹으면 관절염에 좋으며,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좋다.

※ 입과 혀가 헐었을 때, 우슬을 담가놓은 물을 자주 머금으면 좋다.

주 의 사 항도 있다 는 사 실!

- 임신부가 복용하면 낙태의 위험이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쇠고기와는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 신체에 있는 병증에는 적합하지 않다.
- 기력이 너무 쇠약한 체질은 피하는 것이
- 장이 나빠 배 아프고 설사를 자주 하는 체 좋지 않다.

*참고문헌- 동의보감, 동양의학대사전, 본초강목, 신본초학

웰빙채소 장성 '인삼 쌈채'를 들어보셨어요?

잎, 줄기, 뿌리까지 통째 먹는 장성 인삼쌈채!
농가 새 소득작목으로 급부상하며 장성 대표 특산물로!

인삼 쌈채는 상추아파트 시스템을 접목해 뿌리와 잎, 줄기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신개념 웰빙 채소이다. 이 채소는 장성군농업기술센터가 임선호 농가와 공동으로 개발한 특산물로, 지난 2015년에는 세 농업기술시상식에서 기술개발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군에서는 특허기술을 주변 농인에게 무 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대형마트와 고급 음식점에 납품해 고소득 작물로 적극 육성해 오고 있다. 많이 쓰지 않고 부드러운 맛으로 풍부한 영양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는 인삼 쌈채로 식탁과 일상을 건강하게 만들어보자.

장성이 '귀농귀촌 1번지'가 된 비결은?

전라남도 2016 귀농귀촌사업 성과평가 최우수상 수상!
귀농 최적지로 급부상하며 필요한 정보와 지원 단계별 제공!

장성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교통망 발달 등 귀농귀촌인들이 선호하는 위치조건과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
이 같은 기본 조건을 바탕으로 군은 귀농단계별로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나누고, 예비귀농인을 위한 다양
정책을 해마다 펼쳐오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장성군으로 둥지를 옮겨 새로운 인생설계를 시작한 인구는
352가구, 571명으로 나타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문인섭, 홍서연 부부 (귀농 7년 차, (주)다다채 운영)

2017년 귀농인 농업기초반교육 모집 안내

- 교육기간 : 3월~ 12월
- 교육시간 : 13:00~17:00/1일 4시간
- 교육대상 : 50명(귀농귀촌 예정자 및 신규 귀농인)

		교육장소
04 월 26 일	Step up! 농업 6차산업 준비전략반	농업인회관
04 월 28 일		장성관 내
05 월 10 일	장성군 문화 유산 알기 - 1	농업인회관
05 월 12 일		장성관 내
05 월 17 일	내 집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 - DIY	농업인회관
05 월 24 일	장성군 문화 유산 알기 - 2	장성관 내
05 월 26 일		장성관 내
05 월 31 일	내 집을 사랑하는 방법(둘) - 커튼, 식탁보 만들기	농업인회관
06 월 07 일	시골하기 가득한 장성군 알기(축령산 등 체험교육)	농업인회관
06 월 14 일	장성군 알기(모해 등 공장 견학)	농업인회관
06 월 28 일		농업인회관
07 월 05 일		농업인회관
07 월 07 일		농업인회관
07 월 12 일	"시설하우스!" 튼튼하고 안전하게 설치하기	직거래장터
07 월 19 일		농산물시장
08 월 23 일	직거래 장터 방문 (현장교육)	농업인회관
08 월 30 일		농업인회관
09 월 06 일	농산물 시장 방문 (현장교육)	농업인회관
09 월 13 일		농업인회관
09 월 20 일		농업인회관
09 월 27 일		농업인회관
	10 월 11 일농촌에서 일자리 찾기(1)	농업인회관
		농업인회관
	10 월 13 일 농촌에서 일자리 찾기(2)	장성관 내
		농업인회관
	10 월 18 일 우리 집 짓기(건축법, 설계 등)	농업인회관
10 월 25 일		장성관 내
	농기계 안전교육 및 실습(2)	농업인회관
	11 월 22 일	농업인회관
	농산물가공센터, 미생물 활용하기	장성관 내
	11 월 29 일	
12 월 06 일	농업경영전략 - 경영기록장	
12 월 08 일	팀별 과제수행(장성읍, 옐로우시티 알기)	성관
	12 월 13 일 건강한 한우 사육하는 방법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실습형)	
	문화시설 찾아 떠나는 장성여행	

※ 수료증 교부 : 과정 중 130시간 이상 이수 시 교부※ 10시간 이상 교육이수 시 교육 이수증 교부

딸기 재배기술	06월 16일	감 재배기술
사과 재배기술	06월 21일	채소 재배기술
복분자 재배기술	06월 23일	고추 재배기술

도심 속의 가든 만들기

SNS

전통 발효식품 제조법

도시민 삼시세끼 농촌체험 교육 안내

- 교육 대상 : 귀농귀촌예정자 및 도시민
- 교육 기간 : 2일 간 (7시간 / 1일, 총 14시간 인정)
- 교육 신청 : 연중
- 교육 내용 : 농촌문화 안내 (관내 문화탐방, 마을주민과의 대화 등)
  작목체험 활동 (수확체험 및 농업관련 실습교육 등)
  시골생활 체험 (시장, 마을회관 체험활동 등)
- 운영 절차 : 삼시세끼 체험 도시민 신청 ⇒ 선도농가 매칭 ⇒ 일정 협의 (선도농가-도시민) ⇒ 삼시세끼 체험추진

신청하고 싶어요~!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방문, 우편, 메일, 팩스 접수
  - 전화번호 : (061)390-8432~3, FAX : (061)390-7848
  - 메 일 : bjy0198@korea.kr
  - 우편주소 :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우 57214)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내 집 앞에 또 다른 집

어르신들의 '경로당 백 배 즐기기'

장성에서는 어르신들의 주 활동 무대가 되고 있는 경로당에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누구나 함께 어울리
간으로 꾸며 나가고 있다. '실버복지 1번지' 명성에 맞는 장성의 다양한 경로당 사업들을 살펴보고 이용해ㅂ

북이면 상공경로당

장성에는 경로당이 얼마나 있나요?

11개 읍면별 장성 336개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22개의 노인활용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분	계	장성	진원	남면	동화	삼서	삼계	황룡	서삼	북일	북이	북하
계	358	70	31	25	24	37	37	33	20	22	33	26
등 록	336	69	30	23	21	37	32	31	19	18	30	26
노인활용 시 설	22	1	1	2	3	-	5	2	1	4	3	-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떤 사업들을 지원해 주나요?

경로당 운영비와 반찬값 등을 지원하여 혼자 생활하거나 식사를 챙겨먹기 힘드신 어르신들도 함께 모
식사를 하고, 더불어 사는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경로당 운영 지원(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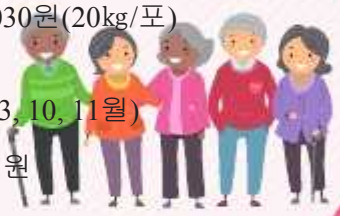
- 지원금액 : 월 13만 원(단, 11~12월은 월 6만 원)

• 경로당 반찬값 지원

- 10~20인이하 : 월 21만 원 - 21~40인 이하 월 23만 원
- 41~60인이하 : 월 25만 원 - 61인 이상 월 27만 원

• 경로당 양곡비

- 지원횟수 : 7회(2, 3, 4, 7, 8, 11, 12월)
- 지원단가 : 회당 38,030원(20kg/포)



• 경로당 특별난방비

- 지급시기 : 5회(1, 2, 3, 10, 11월)
- 지원금액 : 연 150만 원

•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

- 지원대상 : 50개소(미지원 경로당 중 우선순위)
- 지원금액 : 개소당 50만 원~150만 원 상당
- 지원품목 : 안마의자, 공기압마사지 등

• 경로당 개보수

- 지원대상 : 20개소(경로당중 시설개보수가 필요한 곳)
- 지원금액 : 개소당 500만 원 이내
- 지원내용 : 지붕 보수, 화장실 설치 · 보수, 보일러 · 씽크대 [illegible] 상판

• 경로당 에어컨 지원

- 지원대상 : 59개소(에어컨 미설치 경로당)
- 지원기준 : 개소당 120만 원 이내

경로당에 오면 어떤 문화 · 여가활동을 할 수 있나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을 위해 서예, 건강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 160개소 경로당
- 운영시기 : 동절기/ 주 1회 운영
- 운영내용 : 노래교실, 요가, 건강발관리, 웃음운동, 댄스스포츠, 풍물교실 등

• 보건소 '찾아가는 경로당 방문의료서비스'

한 컷뉴 스

01

장성미래농업대학 입학생 200명으로 사상 최대

2007년에 문을 연 장성미래농업대학이 지난 3월 28일 올해로 10번째 입학식을 개최하며 힘찬 출발을 시작
올해는 농산물브랜딩학과와 양봉학과 2개 과정이 개설되었고, 총 입학생은 200명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선
가를 초빙해 현장교육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당초 학과 당 50명씩 총 100명의 인원을 선발할 계획이었으
농업인들이 몰려 군이 고심 끝에 정원을 두 배로 하여 전원 입학을 허가했다.

02

제72회 식목일 기념 황룡강변 식목 행사

지난 3월 28일 제72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군민과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은 황룡강 주변에 황설리화와 개나리, 야생화를 식재했다. 올해는 장성의 대표 미락단지와 황미르랜드 약 1km 구간에 황금색 수종인 황설리화 800본과 개나리 나무를 식재해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줄 수 있도록 했다.

03

북하면 남창마을,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준공식 개최

지난 2월 17일, 고로쇠 채취 지역인 남창마을(이장 이재호)에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준공식이 개최됐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부터 가공단계까지 기계로 관리하는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해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04 2017년 첫 권역별 군민 건강교육 개최

장성군 보건소는 지난 3월 23일 장성읍사무소에서 중부권(장성읍, 황룡면, 서삼면)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권역별 군민 건강교육을 개최했다. 건강교육은 지난해부터 의료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건강 지식을 쉽고 유쾌하게 알려 주는 프로그램이다. 보건소는 앞으로 북부, 서부, 남부권을 분기별로 3차례 더 진행해 군민들에게 유용한 건강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05 군, 투자유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지난 3월 23일 진도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열린 'PM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성군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대상과 함께 상금 1백만 원을 수상했다. 군은 우수사례 발표에서 투자유치 전담 부서인 고용투자정책과를 신설해 기업의 투자 의향 단계에서 투자 실현 및 안정적 정착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행정지원을 해 온 점을 강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06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암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지난 3월 17일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장성주민, 주요 관계자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날 행사는 국가암관리사업 유공자 표창과 김영식 교수의 '웃음과 함께 하는 암 예방' 강연이 진행됐다. 암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예방법을 알려주는 특별한 행사가 장성에서 열려 주민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한 컷뉴 스

07

서울 광화문광장 '귀농귀촌박람회' 참여

군은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광주전남 귀농귀촌박람회'에 참여해 수도권 시민을 상대로 귀농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옐로우시티 컨셉을 이용한'옐로우마켓'은 귀농인들이 직접 기른 작두청, 황칠, 아로니아 등을 판매해 더욱 인기를 끌었다. 수도권 향우들의 협조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서 에 관심 있는 수도권 시민 약 500여명을 직접 상담하고 장성의 귀농정책을 널리 알렸다.

08

장성군 주민도 SNS 즐긴다

군은 지난 3월 6일부터 두달 동안 군청 전산실에서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 향상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은 하루 2시간씩 일주일 간 진행되며,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생활과 생업에 활용할 수 있는 블로그 운영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활용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군은 지난달 교육 희망자를 모집하여 총 283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SNS를 활용해 군정 정보와 생활 정보 등을 실시간

으로 즐길 수 있게 된다.

09

광주학생들, GAP 인증 받은 '장성 쌀' 먹는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평가위원회에서 장성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이 2017년 학교 급식용 쌀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광주지역 초 · 중 · 고 312개 학교에 연간 115톤 가량의 쌀을 공급한다. 학교 급식용 쌀은 GAP 시설을 갖춰야하는 제한이 있어 군은 9억6천만 원의 사업비를 함께 지원해 지난해 12월 친환경 GAP 시설로 지정받았다. 앞으로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장성 쌀의 우수

성을 알릴 계획이다.

10 동화초등학교 학생들, 고사리 손으로 꾸민 '황룡알 꿈동산'

지난 4월 4일, 동화초등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45명이 동화면 남평리 전자농공단지 입구 빈터에 각자의 꿈을 담은 비타민 나무를 직접 심고 '황룡알 꿈동산'을 꾸몄다. 이번 행사는 동화면에서 제72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지역어린이들에게 마련한 나무 동산이다. 어린이들은 자신이 직접 심은 나무에 장래희망을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해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

11 저소득층 노인 대상 개안 수술비 지원

장성군 보건소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백내장, 녹내장과 같은 노인성 안과질환 치료비 전액을 보조하는'개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수술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소득기준 60% 이하인 가구의 60세 이상 주민에게 지원된다. 대상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확되며, 보건소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2 '마음도 쓸어주는 빗자루' 세심비 조형물 제막식

장성 출신 변동해(63)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3시 33분 장성군 축령산 자락에 있는 세심원 앞마당에서 높333cm 크기의 순동 세심비 조형물을 제막했다. 세심비는 댓살로 엮은 빗자루 모형으로 임동희 작가가 순제작했으며, 행사 날짜와 시간, 크기도 모두 행운을 의미하는 '3'이라는 숫자와 일치했다. 변 씨는 축령산

진 움막을 고쳐 세심원을 열고 거처가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장성군의회는 지금

제2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개최
- 2017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장성군의회(의장 김재완)는 지난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 간 제287회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안 심의와 2017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청취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5건, 장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1건 등 군정 전반에 청취했다. 또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조치결과와 그 이행여부를 확인했

의회운영위원회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최근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지난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
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장성군 건축 조례 전부
조례안」,「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
개정조례안」,「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도시 공간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성군 실정에 맞는 경제 · 사회기반시설의 종합적인 기능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다.

제28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개최

- 조례안 10건, 의견청취 1건 처리
-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장성군의회는 지난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의견청취 등이 상정되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동섭)에서는 차상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여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상복)에서는 「장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장성군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옥)는 지난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간에 걸쳐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수정 가결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118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620억 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1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478억 8,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4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다.

심사결과 '장성호 제방 옐로우시티 홍보문안 설치' 등 총 4건에 대해 19억 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토록 했다.

김옥 예결위원장은 "추경예산 편성의 원칙에 따라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면밀한 검토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해 군민의 혈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심사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고재진)에서는 「장성 소방서 설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군 로컬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성군 수도급수 및

장성군립도서관 추천도서

인문교양

어떻게 공기를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시애틀 추장, 가갸날, 2015.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본사가 있는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시의 이름은 한 인디
추장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그는 '시애틀 추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1855년 미국정부의
의해 자신들의 땅을 내놓아야 했을 때,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감동적인 연설문을 남
자신의 부족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부족의 운명을 걸머지
었던 노추장의 고뇌가 연설 속에 배어 있다.
그의
그의 연설이 세계인의 가슴 속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시대와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오늘의
오늘의 세계에서 더욱 그 의미가 새로운 혜안과 지혜가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토록 어여쁜 그림책

이상희 외 저, 이봄, 2017.

그림책은 어린이들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에게 어여쁘고 다정한 세계로
것을 권하고, 그림책을 읽고 싶지만, 어떤 것부터 읽어야 할지 망설이는 어른들에게 어
책을 언제 읽으면 좋은지를 알려준다.
나를 돌
일상의 소소한 일상에서 잊은 지 오래되긴 했으나, 기쁘고 소중한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었음
응원의
상기시켜주고, 모든 관계의 기반이 되는 사랑의 여러 빛깔을 돌이켜 보게 함으로써 '지
나'를 둘러싼 숱한 관계들을 되짚어 보게 한다. 어른들에게 건네는 적극적인 위로이자
응원의 책이다.

에세이

공터에서

김훈 저, 해냄출판사, 2017.

일제
전쟁에
급속한
가족사
우리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굵직한 사건들을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와 그의 삶을
바라보며 성장하는 아들들의 삶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 겪게 되는 한국전쟁. 군부 독재 시절의 폭압 적인 분위기, 베트
전쟁에 파병된 한국인들의 비극적인 운명, 갑작 스러운 대통령의 죽음, 언론 통폐합과
급속한 근대화와 함께 찾아온 자본의 물결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사건들을 마씨 집안의
가족사에 담아내고 있다.

문화예술회관 CINEMA

영화

공조

출연 : 현빈, 유해진, 김주혁

역사상 최초의 남북 공조수사를 위해 남한으로 파견된 북한 형사 '임철령'(현
그러한 철령을 감시하는 남한 형사 '강진태'(유해진). 한 팀이 될 수 없는 남북
예측불가 공조수사가 시작된다.

일　　시 : 2017. 4. 25(화) 19:00 (125분)
장　　소 :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 람 료 : 선착순 무료 입장
관람연령 : 15세 이상 관람가

※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문화가 있는 날」 최신 흥행영화 무료 상영

연극

트랜스포머 마법열차

레이저, 미디어, 마술, 코믹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하여 가족의 달
5월에 가족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일　　시 : 2017. 5. 16(화) 15:00, 19:00 (60분)
장　　소 :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 람 료 : 3,000원 (학생, 경로, 장애인 등 50% 할인)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관람가(아동극)

※ 예약 안내_ 인터넷 ((http://culture.jangseong.go.kr), 전화(☎ 390-8476~8)
직접방문 (읍·면사무소, 문화예술회관)
※ 오시는 길_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장 성 읍

2017년 장성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식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유공 표창

지난 1월 5일, 두 해 동안 장성읍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 갈 주민자치위원 25명이 위촉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 날 위원들은 한 자리에 모여 임원을 새로 선출했으며, 이현종 씨가 제8기에 이어 제9기에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현종 씨는 2월 17일, 5개 읍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유공 표창(훈격 : 행정자치부 장관)을 제24대 읍장 김봉수 씨까지 고인이 되거나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3명을 제외하고 10명의 전 읍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현재 장성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재직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역대 읍장 초청 간담회로 진행됐다.

장성읍 역대 읍장 초청 간담회

지난 2월 20일, 10여 명의 역대 장성읍장이 한자리에 모여 장성읍 발전에 도움이 될 지혜와 조언을 얻는 자리를 가졌다. 11대 읍장을 지낸 변선의 씨부터 현

장성읍 마을 곳곳을 누비는 옐로우 차량 구입

장성읍에서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빠른 민원 해결과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소통행정 실천하기 위해 신규 옐로우 차량을 구입했다.

진 원 면

진원면 한농연 회장 이·취임식 개최

지난 2월 8일, 진원농협 회관에서 한국농업경영인회 진원면협의회 제17대 변영연 회장 이임식 및 제18대 표영천 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군수, 군의원, 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아갈 농업경영인회에 큰 격려와 박수를 보냈다.

진원면 쌀전업농, ‘사랑의 쌀 뒤주’ 운영을 위한 백미 기증

진원면 쌀전업농회(회장 변영연)는 지난 2월 10일, 사랑의 쌀 뒤주 운영을 위한 백미 20kg 20포대를 면사무소에 기증하였다. 사랑의 쌀 뒤주는 면사무소 앞 구에 설치되어 어려운 이웃이 수시로 쌀을 가져가 운영 중이다.

남 면

남면 농협 ‘신나는 노래교실’ 운영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남면 농협에서 조합원 120명이 참여하여 ‘신나는 노래교실’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심신이 지친 마을 주민들이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남면 (주)참든건강과학, 어려운 이웃 집 청소 실시

남면 입주기업 (주)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 임직원은 지난 3월, 연산마을과 월산마을 2가구를 방문해 집 청소를 실시하였다. ㈜참든건강과학은 친환경 유기농산물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나눔과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동 화 면

봉사단체 '마움사', 독거노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민간봉사활동단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회장 이상수)' 회원 10명은 지난 1월 동화면의 독거노인 가구를 찾아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 단체는 물이 봉사단체로, 지역을 불문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화면 번영회와 조종열 씨, 경로당 24개소에 100만 원 상당 백미 24포 전달

조종열 씨(동화면 前노인회장)
동화면 번영회(회장 이창연)

오랜 전통과 미덕이 살아 숨 쉬는 구산당산제와 동계솟대제

지난 정월대보름 동화면에서는 '구산당산제'와 '동계솟대제'가 열렸다. 구산당산제는 구림2리 구산마을 주민 이상 오랜 세월 동안 당산제를 준비하며 주민단합과 친목을 도모해 오고 있다. 올해는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악공연, 풍물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달집태우기 행사가 열렸다. 동호2리 동계마을의 동계솟대제는 마을 구성초기부터 수호신 역할을 해온 짐대에서 음력 초하룻날에 마을의 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풍습이다.

동화면 여성자원봉사회, 비누 만들기 행사

지난 3월 11일, 동화면 여성자원봉사회(회장 황연님) 회원들은 직접 폐식용유를 모아 비누를 만들어 형편이 어려운 독거 노인에 전달했다.

삼 서 면

삼서면 이장협의회 소방안전교육 실시

삼서면 이장협의회(회장 이순범)는 지난 2월 2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받았다. 삼계119안전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화기취급주의,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위급상황 시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삼서면,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 실시

삼서면사무소 직원, 주민, 단체 회원 등 60여 명은 면소재지, 마을앞길, 주택가 골목 등 마을 곳곳에서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겨우내 마을 입구, 주요 도로변에 방치된 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등 환경정화활동을 통하여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였다.

삼 계 면

비봉부대 자원봉사 페스티벌

51군수지원단 정비단(대대장 김양준) 병사 30여 명은 지난 3월 18일, 삼계 관내 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 부대는 작년부터 매월 2회 꾸준히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며 지역과 상생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삼계면, 전남 북부권 2017년 물의 날 행사

지난 3월 21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물의 소중함과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과 공무원, 포병대군인들이 평림댐 생태습지와 둥망대, 산책로 일원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환경정화활동을 하였다.

황 룡 면

황룡면 월평 5리 일산마을 가로수 식재

황룡면 일산마을 주민들은 마을 경관을 살리기 위해 기존 가로수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이팝나무를 식재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3월 6일, 70주를 식재하였다. 이는 마을 주민들이 사계절 향기 나는 일산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 기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룡면 청년회, 이·취임식 가져

지난 2월 11일, 황룡면 청년회가 오투 스토리 캠핑장(구 황룡초교)에서 제9대, 제10대 회장 이·취임식 및 워크숍을 가졌다. 이 날 관내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이장, 청년회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모여 자리를 빛냈다. 제10대 회장에 취임한 이광용 회장은 "많이 부족하지만 황룡 면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며 취임사를 전했다.

황룡면 황룡 2리 부흥마을 이승배 씨 메기 330kg 전달

지난 2월 20일, 황룡면 부흥마을에 사는 이승배 씨(52세)는 관내 어려운 이웃에 온정을 나누고자 메기 330kg을 통 크게 전달하였다. 그 날 오후 황룡면(면장 김홍립)에 [illegible] 이승배 씨가 전해 준 메기를 경로당 33개소에 골고루 전달하며 겨울철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명감과 결속을 다졌다.

서 삼 면

서삼면 송현리 김동주 씨, 3백만 원 상당의 먹거리 경로당 지원

서삼면 송현리 김동주 씨는 지난 1월, 3백만 원 상당의 먹거리(김밥, 떡, 오뎅, 순대, 닭강정)를 20개 경로당에 지원하여 따뜻한 지역 만들기에 앞장섰다.

한백산악회, 축령산에서 시산제 개최

지난 2월 27일, 서삼면 한백산악회(회장 선만순)에서는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의 안전한 산행을 기원하고 먼저 간 산우들을 추모하고자 축령산에서 시산제를 올렸다.

서삼면, 3월 첫 이장회의 장성숲체원에서 열어

지난 3월 9일, 국립장성숲체원 치유의 숲 세미나실에서 서삼면 이장 및 직원, 숲체원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이장회의는 지역의 대표 관광 자원인 축령산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주민부터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북 일 면

북일면, 현장행정 우수 읍면상 수상

북일면(면장 류이경)이 '2016년 읍면동 현장행정 강화 시책평가'에서 우수읍면으로 선정되어 전라남도로부터 표창패와 함께 1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전남도에서 실시한 이번 평가는 문화재 및 관광시설 관리, 사회복지행정 추진, 산불예방 강화 등 10개 분야 26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실적평가와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대학생 총 80여 명에게 4,3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지역인재 양성에 일조해 오고 있다.

북 이 면

(정비 전☞ 정비 후)

북이면 백양IC 입구 단장

과거 주변에 방치된 가설 건축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백양IC 입구가 [illegible] 단장되었다. 이는 작년부터 북이면 주민, 도로공사, 농가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옐로우시티 이미지를 [illegible] 지역개발과 연계한 거버넌스를 이[illegible] 했다.

북이면 임명관 씨, 이웃돕기 성금 기탁

12월 24일, 북이면에 거주하는 임명관 씨가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illegible] 저소득층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전달되었다. 임명관 씨는 작은 정성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하며 좋은 귀감이 되었다.

강정순 할머니 100세 잔치 열려

2월 12일, 북이면 달성리 궁동마을회관에서 올해 100세를 맞은 강정순 할머니의 생신 잔치가 열렸다. 강정순 할머니는 100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신 모습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 날에는 가족들과 마을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어르신의 100번째 생신을 축하드리며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였다.

북이면 궁동마을,

북이면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개최

지난 3월 15일, 맑은 봄볕 아래 북이면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날은 유두석 장성군수, 이개호 국회의원, 군의원, 도의원, 주민자치위원, 사회단체장, 이장, 수강생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북이면 주민자치센터 도약을 염원하는 노랑풍선 날리기, 기념식수 등의 행사를 가졌다.

북 하 면

북하면 청년회 봄맞이 대청소 봉사활동

북하면 청년회(회장 이금주)에서는 지난 2월 27일, 회원 15명과 함께 불우이웃 가정을 방문해 봄맞이 대청소를 추진했다. 이번 대청소로 집 안팎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이웃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청년회에서는 평소 복거도인 쌀 전달 및 시가지 청소 봉사 등 훈훈하고 깨끗한 북하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북하면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개최

지난 3월 15일, 북하면사무소에서 기관 · 단체장, 주민자치위원, 수강생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하면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장 장영길) 개소식이 개최됐다. 작년 12월부터 3개의 프로그램(노래교실, 배드민턴, 다도 및 자연차 만들기)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현재도 70여 명이 넘는 수강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상기후대응 주요작목별 워크숍 실시

지난 2~3월, 북하면 13개 단체(작목반 5개소, 농업 관련 단체 8개) 180여 명을 대상으로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작목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는 올해 북하면에서 추진하는 신규시책으로, 북하면에서 많이 재배되는 품목인 오디, 복분자, 감, 사과에 대한 기후 변화 대응기술을 공유하여 경영안정 및 소득향상을 위해

01_ 장성군 , 장성장학회에 법인카드 적립금 2천5백만 원
02_ (주)영지 (대표 차상준) , 장성장학회에 1천만 원 기
03_ HRC(호남리싸이클링센터) ,
위문품 5백만 원 상당 압력밥솥 20개 기탁

04_ 장성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조선희) ,
장성장학회에 3백만 원 기탁
05_ 장성군농협연합공조회(회장 김영재) ,
장성장학회에 2백만 원 기탁
06_ 장성우리신협(이사장 나복주) ,
장성장학회에 1백만 원 기탁

민주평통장성군협의회(회장 안숙자)
장성장학회에 1백만 원 기탁
더힐링나인 · (주)인디산업개발(대표 정경민)
위문금 1백만 원 기탁

함께 나누는 세상 **나눔마당** 나누면 행복해 집니다

장성군립도서관 독서 · 문화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

장성읍 문화로 110

☎ (061)393-7900

옐로우시티 독서마라톤 대회 개최

- 기 간 : 2017년 3 ~ 10월
- 참가자격 : 도서관 회원(중앙 · 삼계 · 북이)
- 대회내용 : 5개 부문 (3KM, 5KM, 10KM, 하프코스, 풀코스)
- 기록방법 : 독서마라톤 홈페이지에 독서일지 기록 누적관리
- 완주혜택 : 완주증서 수여 및 군수표창 15명(5개 부문)

제3회 2017 「책놀이 한마당」 개최

- 시 기 : 2017년 10월
- 내 용 : 군민과 함께하는 책 축제

독서동아리 어울림마당 개최

- 시 기 : 2017년 9월
- 주요내용 : 1년 동안 활동 후 활동 작품 전시, 동아리 발표회

- 전시한마당 : 그림책 도서전, 패밀리 북, 빅북아트전 등

- 체험한마당 : 책 속 보물찾기 등

삼계도서관

삼계면 영장로 1585

☎ (061)395-4100

- 기 간 : 2017. 2 ~ 12월
- 대 상 : 상무대 장병 및 군인가족
- 운 영 : 자율적인 운영, 월 1회 강사 지원, 모임 장소 제공

독서동아리 확대

도서관 재능기부 운영

- 시 기 : 2017. 3 ~ 12월
- 분 야 : 5개 분야(아로마테라피 ,한지공예, 캘리그라피 등)

북이도서관

북이면 백양로 13

☎ (061)395-4200

행복한 노년 서비스 제공

- 노인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폰 사용법 강좌 : 2017. 7 ~ 8월
  -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영화상영 : 2017. 3 ~ 12월
- 바둑, 장기 동호회 독려 및 모임 장소 제공
- 큰글자 도서구입 및 저시력자용 독서확대기 비치

찾아가는 옐로우 책배달 서비스

- 기 간 : 2017. 3 ~ 12월(월 1회)
- 대 상 : 기관 · 단체 4개소
- 내 용 :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농협 등 맞춤형 배달서비스

장성군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안내

장성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 스스로 문화예술 감수성을 함양 할 수 있는 프
『상상학교』와, 지역 역사문화 이해를 돕는 『청소년 보훈 캠프』를 진행 할 예정이오니 많은
바랍니다.

⊙ 2017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상상학교』

- 모집기간 : 2017. 4.~ 5.
- 모집대상 : 장성군 청소년(중·고등학생 20명))
- 사업기간 : 2017. 4. ~ 11.(10개월)
- 참 가 비 : 무료
- 신청방법 : 지원서 작성(홈페이지)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http://www.jsyouth.kr / jsyouth0924@daum.net)
- 프로그램 소개 : 청소년이 주축이 되어 클래식 소규모 실내 악단(앙상블)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3가지 악기(플룻, 바이올린, 첼로)를 배우는 자기개발 프로그램

⊙ 2017 청소년 보훈캠프 『민중의 소리 그 역사 속으로』

- 모집기간 : 2017. 4. ~ 5.
- 모집대상 : 장성군 중등 청소년, 40명
- 사업기간 : 2017. 4. ~ 11.(10개월)
- 참 가 비 : 10,000원(티셔츠, 기념품 지급)
- 신청방법 : 지원서 작성(홈페이지)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http://www.jsyouth.kr / jsyouth0924@daum.net)
- 프로그램 소개 : 기존 강의 방식을 벗어나서 자연활동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지역 내 존
  의병활동 및 광주민주항쟁의 이해를 돕는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얻는 프로그램

문의처 :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061)817-0923~4

알림마당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안내

⊙ 사랑의 하모니 (여성농업인 합창단)

-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반 ~ 9시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 (장성읍 단풍로 220)
- •내　　용 : 전문강사와 함께하는 합창교실

⊙ 은빛어머니 교실 (한글교실)

- •일　　시 : 매주 화, 목요일 오전 9시반 ~ 11시반
- •장　　소 :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남면 시목1길 68-8)
- •내　　용 : 배움의 기회를 놓친 여성농업인에게 한글 교육

⊙ 책읽는 농부 (독서교실)

- •일　　시 :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7시반 ~ 9시반
- •장　　소 :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남면 시목1길 68-8)
- •내　　용 : 일반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모임

⊙ 두드림 난타

-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9시반
- •장　　소 :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남면 시목1길 68-8)
- •내　　용 : 허약해진 근력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난타교실

⊙ 오카리나

-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반 ~ 9시반
- •장　　소 :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남면 시목1길 68-8)
- •내　　용 : 작은 거위를 뜻하는 오카리나 악기 배움 교실

※ 교육에 관심있으신 여성농업인은 연중 참석 가능합니다

문의처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담당 (061)390-8456
장성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061)394-3035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제도 도입

⊙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시행시기

- 1차 : 2016. 12. 31. 시행

→ 적용품목 : 밤, 호두, 참깨, 해바라기씨, 바나나, 참다래 등

- 2차 : 2018. 12. 31. 시행예정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농약 잔류허용기준 도입 시 달라지는 점

전
규제물질 목록화 제도(Negative List System)로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

후
PLS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

⊙ 잔류농약 검사 기준이 강화합니다.

⊙ 농약사용 기준이 변화됩니다

전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현행과 같이 기준 이하만 적합
잔류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 현행은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을 적용

후
PLS가 시행되면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되고 0.01ppm 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

⊙ 잔류농약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 하게 됩니다.

2015년 검사결과 기준 적용 시 잔류농약 부적합률 증가 예상 : 1.7% ☞ 6.0% 증가 (3.53배 증가)

조사건수 65,957 → 현행 부적합률 1.7%(부적합건 1,117) → PLS 적용시 부적합률 6.0% (부적합건 3,946)

문의처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담당 (061)390-8404

국민권익 110
청부민원 110
1398
우리 모두를 위한
양심의 실천
공익신고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를 약속합니다
보호
•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각종 불이익조치 금지
• 형벌·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신고
• 홈페이지(1398.acrc.go.kr), 부패·공익신고 앱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대상 : 5대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
국민권익위원회

알림마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름다운선거
"참여하는 설렘을 함께 느껴요"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신동
"투표에 희망을 담아 보세요"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김연우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선거를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윤주상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 5월 4일(목) ~ 5일(금)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투표 : 5월 9일(화) 오전 6시 ~ 오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방문하시면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